

# 167 흔덕장군

贈呈

<6·25전란의 순교자들>  
- 안천사 -



1965

5 7 30  
1989

## 교황 바오로 6세

4 × 6 판 · 106면 · 아트지 회보 25면 · 120 원

천주교 교황 바오로 6세의 전기

R·M·오친스  
著  
우·한·무  
譯

## 教育의 本質

3 × 6 판 · 모조 반양장 · 166면 · 120 원

西洋 文明의 傳統과 大著書와의 關係  
및 教養敎育의 本質과 그것의 可能性.

## 바느의 성모

4 × 6 판 · 64면 · 50 원

<가난한 자의 동녀> 이신 성모의 바느에  
발첨한 이야기와 메시지.

가동서  
出版社

## 가톨릭知性人隨想集

4 × 6 판 · 초판 양장 · 170면 · 170 원

各界 가톨릭 名士들이 人生과 宗敎를  
論하는 惠識의 要素.  
知性人들을 위한 傳敎商로 訓導.

6

가톨릭 출판사



으로써 우리나라 歷史上 다시 한번 殉教者時代를  
가져다 준 것이다. 이제 그 生地獄같은 6·25  
勤亂도 今年으로十五年째 접어들고 있다. 十五  
年 전에 일어났던 교회수난을 들이켜 보며 수  
많은 聖職者와 平信徒들이 원수들의 손에 숨지  
간 사실을 회상하고 그들의 순교상기를 더듬어 보  
려 한다. 이 글은 앞으로 몇년에 걸쳐 자료가  
수록되는 순서로 연재할 예정이다.

### 敎會에 뻗치는 불의 魔手

筆者가 이 글을 쓰는 것은 韓國의 第三次殉教  
史를 읽어보려는 주제넘은 풋에서 하는 것이 아  
니라 다만 共產南侵으로 인해서 革命을 일으킨  
八以南의 敎會 實情의一面을 살펴봄으로써 後  
日 史家의 資料 수집에 적으나마 도움을 주려는  
뜻에서 글을 밟아 두지 않을 수 없다.

一九五〇年 六月二十五日 주일날 새벽, 三八線을  
넘어온 北朝軍은 六月二十七日 咸川 양양聖堂에  
서 「아밀란드」 대신 「문리어」 神父를 종살하였다.  
이 분은 한국 동란에 면 처음으로 순교한 南韓

불러도 대답없는 분들이어! 두고 두고  
아쉬운 분들이어! 六·二五 赤魔가 앗아간  
분들이어!

一七八四年 北京에서 入教한 바  
드루 李承薰씨가 聖物과 聖書를 가  
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天主教를  
전교한 以來 敎會는 세차례에 걸  
쳐 모진 박해를 받았다. 그 첫  
번째 것은 우리 七十九位 치명  
福者를 낳게 한 李朝時代의 박해  
있고, 두 번째 것은 日帝 末期의  
은근한 박해였다.

그러나 어떤 박해 보다도 더  
넬리 世祖가 살리건 것은 共產  
黨에 의한 세번째 박해였다. 소  
련軍이 濟州와 北韓에 빌어 닥치면서 一九四五年  
延吉敎區의 「유선박시오」 神父를 종살하고 이어 「보  
나파시오」 神父도 함께 처형되었다.  
이렇게 해서 幕이 열린 宗敎迫害의  
職者들을 닥치는대로 잡아 가물으로 쳐  
있다. 德源修道院과 神學校는 송두리째 암수되어  
金日成發科大學이라는 간판이 달리게 되었고 六·  
二五 直前까지 三八以北에는 거우 八名의 神父만이  
참살되지 않고 있었다.

이윽고 一九五〇年 六·二五 南侵을 감행한 共  
產黨은 大韓民國의 中堅 政治人과 더불어 敎會의  
重地를 데려도 魔手를 펼쳐 닥치는대로 拘禁殺害하

## 六·二五戰亂의 殉敎者들

### —十五周年을 맞으면서—

安 詰 球



를 비롯한 다섯분이 獄死하였고 「요안」俞榮根神父를 비롯한 일본인 行方不明, 「야고비」李顯鍾神父를 비롯한 이들은 被殺, 여섯분이 獄死하였다가 다시 自由의 품에 回였다.  
그러니까 서울敎區에서 二十九명의 회생자가 나온 것이다. 春川敎區는 八명의 회생자를 내었는데 「로마스·첸란」敎區長과 그 밖에 한 분이 돌아왔을 뿐, 「풀리어」(浦)神父等 네분의 神父가 被殺되었고 「캐나반」(桂)神父와 그 밖에 한분이 獄死하였다. 大田敎區에서는 모두 十명의 회생자를 내었고 「몰리」(牧)神父를 비롯한 일곱분이 被殺되었고 「프레난」(安)神父 외에 두분이 行方不明 되었고, 教皇使節館에서는 方士敎가 獄死하였으며, 妻晚秀神父가 行方不明 되었다. 光州敎區에서는 「부스」(夫)神父가 生還하였다. 이같은 바지고 보면 三八線 以南에서 괴리군에게 잡혀간 聖職者の 수는 모두 五十二명이며, 그 중에 被殺된 분이 十九명, 獄死한 분이 一명, 行方不明이 十四, 그리고 살아서 돌아온 분이 九명이다.

### 聖堂 앞에서 숨져간 李神父

共產軍에 의하여 被殺된 聖職者の 모습을 여기서 한분 한분 다 詳介할 수는 없다. 그것은 때와 場所가 다르고 또 組職의 으로 秘密히 處刑하는 수가 많았기 때문이다. 다만 눈뜨고 볼 수 있는 惡狀 속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신 聖職者를 중에서 難中에 聖堂을 들보려 왔다가 天主의 聖殿 앞에서 거룩한 미를 뿌리고 숨을 거둔 李顯鍾神父, 그 리고 動亂中 활까지 서술敎區의 어린 꾼들을 물 보기 위하여 스스로 가시밭 길을 헤하고 韓滿國境地帶에서 숨져간 教皇使節 「번」(方)主教에 판한 이야기를 차례로 적어 볼 생각이다.  
李顯鍾(야고비)神父는 서울에서 處刑된 첫번째 聖職者이다. 水盈浦 聖堂의 補佐神父이던 李神父는 六月二十七日 괴리군이 서울에 入城했다는 소식을 듣고 本堂 朴神父와 함께 잠시 몸을 미해 서 어느 教友집에 묵고 있었다. 七月二日, 거리

의 가톨릭 聖職者이다. 七月二日에는 永豐浦 本堂도 총살하였다. 그날夜里 본격적인 教會관악에 나선 괴리군은 春川의 「캐나반」(孫)神父 「토마스·첸란」(具)主教를 獄押하였다. 洪川에서는 「크로즈비」(趙)神父, 江原道 북호의 「데일러」(神父, 三勝의 「마진」(魂)神父 등을 차례로 체포 獄押했다. 七月十一日 교황사절 「제임즈·F·번」(方)主教를 비롯해서 사절관비서 「부스」(夫)神父, 서울敎區 당가 「俞榮根神父」 「마오모」修女院 「찰련」修女院 「장도」(張)神父, 「봉례교」(孔)神父, 聖神大學具神父, 仁川 「마오모」修女院지도 「孔神父」가 계죽해서 잡혀갔다.  
八月부터는 성직자 체포 범위가 남쪽으로 넓어 木浦에서 光川敎區長 「보데날」(安)神父 등 성직자들이 잡혀 서울로 납송되었다.

### 三八以南의 獲牲聖職者 五十二명

지금까지 公式으로 알려진 三八以南의 聖職者 외에 木浦에서 光川敎區長 「보데날」(安)神父 등 성직자들이 잡혀 서울로 납송되었다.

의 분위기가 좀 가라앉고 조용해진 풍운 타서

李神父는 聖堂이 어떻게 되었나 궁금해서 아침 일찍기 聖堂으로 갔다. 아침 미사를 드리고 막 성당 문 밖으로 나오는데 느닷없이 피리군 서니멍이 충무리를 들이대고 소리를 질렀다.

『뭐가야?』

『나는 이 성당에 있는 가톨릭 神父요.』

『신부? 무시개 하는 거이 신부야? 반군분자

지비?』

『인민의 고혈을 한아막는 악질이다……』

『파라!』

『탕·탕·탕』

성당 문을 나서던 李神父는 순식간에 피부성이

가 되어 그 자리에 놀라지고 멈았다.

『오주 선수이……내 몸을 네 손에 맡기마라……』

李神父는 입 속으로 외우던 고요의 天主——를 예 안하고 말았다. 세미의 고요를 대파하고 물리오는 총소리가 성당쪽에서 들리자 당황하게 살고 있던 徒服者는 참작하면서 물었다. 그리고 뛰어갔다. 그는 「……」라고 대답하였다.

있었다.

『이건 또 무시개야? 야! 넌 뭐가야?』

『난 성당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오. 그런데…… 저 분은……』

『야 이 새끼……반동 앞재비구나……』

『아이구 李神父님……』

徐마리노 服務가 채 李神父 옆으로 가기도 전에 요란한 총소리는 또 다시 새벽 하늘을 짓듯이 울리 머쳤다.

一九五〇年七月二日 새벽에 일어난 가슴 아픈 사연이었다. 李顯鍾神父는 一九三三年에 대구 철운 駕駕者로 一九五〇년에 서풍 받은 앞날이 죽망되는活動力이 있는 神父였다.

### 敎會半世紀의 살아있는 「실태」

韓國 가톨릭의 初期 半世紀 人物로 손꼽힐 수 있는 분으로 「밀레모」 馬神父가 있다. 「수 박파기」라고 멀미이 불을 만큼 무뚝뚝하고 무관한 품성과 위엄 있는 懷臨, 용모를 지니고 있는 馬神父는 一八六九年에 「프랑스」에서 태어났다. 一八九二년에

多少 信者들의 반발을 사기도 하는 性格을 理解하는 사람들은 해가 간수록 늘어났다. 특히 지금의 盧大主教가 明洞 换佐補父로 就任하자 그 圓滿한 성품은 잘 本堂神父와 信者들 사이에 생기기 쉬운 모든誤解를 물어주었고 信者들은 끝내 盧神父를 놓지 않아 아침내 换佐補父가 主教로 任命되는 异例의 事實을 낳게 한 것이다.

### 고요히 主의 품안으로

서풍은 말은 주시로 「파리 外邦等敎會」에 訓神父로서 二十二歲의 젊은 나이에 故國을 떠나 낯설고 風俗 선은 아시아의 작은 島에 밭을 둘여 놓았다. 그 當時 韓國에는 東學의 道院이 아직 가시지 않았고, 外國人의 入國는 조세하게 막고 있던 해이므로 西海岸地域으로 들어온 人國한 것이다. 韓國 가톨릭을 위하여 聖母로 모셔온 그의生涯는 劍亂을 끌고 드러나면서 그 속에 韓滿 國境地帶까지 끌려가 韓村에 다니면서 전 운행 차례나 관가에 잡혀 살 위험을 주었으나 그의 군 가 숨을 거울 때까지 苦行의 연속이었고, 헌신의生涯를 겪어온 韓國敎會의 恩人이다.

朴神父(法師 鮑人) 위문 이이 首都 大聖堂의 本堂을 말으라는 명을 알았고 이이 聖明院의 朴神父(法師 鮑人) 위문 이이 首都 大聖堂의 本堂을 말하는데 神父로 취임하였다. 正義를 위하여 敎理를 가르치는데 所信을 중립을 모르는 馬神父는

馬神父가 잠해간 것은 一九五〇年七月十七일이었다. 明洞에 있는 「샤르트르·파오로」敎女院의 指導神父이던 그는 當時 八十一歲의 高齡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公使의 抗議도 아랑곳 없이 院長 「베아드리스」修女와 함께 小公洞 大師勞德建築物에 잠해우고 말았다.

큰 방에는 이미 불들려온 敎皇使節 方主教、秘書夫神父, 그리고 明洞 당가 俞榮根神父들의 모습도 보였다. 거기서 보급해주는 食事라는 것은 아침과 저녁에 오리가 半以上이나 섞인 주식밥



# 李在現 神父等 被拉記



붉은 것들이 펼쳐졌던 강로를 짓밟고 수도서 울을 지배하고 있었다. 용산구 원효로 번지. 당시 성심 소신학교의 교장이었던 이 재현(요셉) 신부님은 비롯하여 백 남창(아가비도) 신부님, 정 신부님 등 다섯 분과 친원 몇 명 그리고 학생 몇 명이 남아서 지키고 있었다. 이상한 예감을 갖게 하는 표성이 멀리 빠져온 은은히 울려왔다. 우리는 이것이 아군의 함포 사격이 아닌가 하고 마음을 조이고 있던 더에 어떤 교우의 연락으로 확인하게 되었다. 이것이 1950년 8월 15일 성모 동산 충전날 밤이었다. 이제는 밤도 심고 잘도 쉽었다. 장난도 치고 싶지 않았다. 날마다 동산에 올라가 쪽에서 연기가 오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일과 가 되었다. 동네 사람들도 알았는지 동산 위에 모여드는 표정은 은근한 미소와 희망의 빛이 완연했다. 그러나 사나울뿐이었다. 다시는 그 표성이 들려오지 않았다.

그리던 어느 날 한복을 입고 성당과 본관 사이의 마당을 거닐고 있던 교장 신부님에게 낯선 청

포성은 점점 가까이 들렸다. 저녁이 되었다. 우리는 모두 통산에 올라가 인천쪽을 바라보았다. 지척에서 연합군의 포탄이 폭발되는 것을 여실히 볼 수 있었다. 조금 있으니 기관총 소리가 들리고 더욱 고 소리까지 들렸다.

『상았구나!』

우리는 교장 신부님 방으로 몰려갔다. 오늘 밤에는 무슨 일이 있을듯 하니 참간 미하시는 것 이 좋겠다고 했으나 학교를 사수하려는 결의는 숨직일 수 없었다.

『저희들이 밤을 세워 지키겠습니다. 신부님은 참간만 미하십시오. 예감이 이상합니다.』

우리가 하도 즐라내니까 교장 신부님은 동의하였다. 그 기색을 보였다. 그래서 10명 가량의 학생들이 시간을 짜서 지키고 있었다. 밤 9시 40분 해 일로 전격해오는 그것이었다. 9월 16일 아침이 밤자 포성은 인천에 상륙하여 서울을 탈출하려는 것이었다. 사대는 이미 유난히 커졌다. 사대는 이미 결정적임을 느끼고 우리는 신부교구에 피신하기를 원했으나 둘째 않았다.

그러구의 한 달이 지났다. 인천 북에서는 다시 포성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스러졌다 회랑이 압둘로 가득 차 있다. 그 주일 동안 이런 일들이 계속되었다. 일방문이 해 일로 전격해오는 것이다. 어린것들이 애처롭게 보였던 모양이다.

『네들아. 그만들 가서 자제라. 오늘 밤에야 무슨 일이 있을라구?』

그대로 우리는 듣지 않고 버티었다.

『이야. 빌어먹을 놈들! 그만 가서 자!』

그전 햄시파(한국)이 환우를 했다. 즉 한술 든 것이

차자에 편리록 신뢰가 난다. 출동이 외다. 예라 모르겠지. 나도 몰라 하罢. 우리는 헛구 둘 아랫 방이려 대로 가고 말았지. 표성이 점점 커지고 심왕이 번화인가. 그리고 허기지고 꾸하던 몸이랑 나는 함께 차이 떨었지. 다시 밤이구 되었을까? 황황! 소복하게 문을 두드리니 소리에 놀랐지었다. 모른 체하고 있으면 그 문에 부술듯이 럼비다. 아마 철도 공사가 아니면 의용군 강제 모집이겠지 하고 나는 일부러 한심한 일은 채작은 해처럼 목소리를 편집해서 문께로 나왔다.

『나구세요?』

『우리 동네 자위단체 좀 조사할 일이 있어 왔지.』

자위단체인 서울 말려잡는 기자는 할정도 사루 리쳤지. 문을 열어 주지 않을 줄이도 학교 담수의 허가 없이는 문을 못 여닫고 하니깐 전문이라면서 문짝을 세계 전에 걸어쳤지. 그게 뭘 알면 그 때 봐라 하니 무언 일어 주지 않을까 하였으나



문이 약해 힘들고 주저거렸지 않았지. 주수고 듣어와서 뒤로 푸구를 도입시켰지 나고 문제 삼을까 봐 문고리를 풀었지. 그리고 손에 잡았지.

아래는 끝난 푸구로 보는지인 남자에 웃도고는 아무렇지난 자세로 그려진 푸구를 엎었지. 이자! 나 는 저 작자이더 헛웃음을 — 이 푸구는 우리 신부님 둘째 푸구이었지. 나 저보구구.』

『으, 으음... 헉 뭔 양 뭔짓지? 책임자 어디 있-

『신부님, 제가 이 일은으로 나가겠으나.』  
『우, 잘하다!』

우리는 모두 푸구를 잡아갔지. 신부

님의 강복을 알고는 그게 놀랐지. 손총과 함께 더

욱 거두는 결의를 세겼지.

아신 교장 신부님이 그를 불러 아버지를 무繇을 하시고나니 놀랐지. 아무 것도 안 하신다면 학교 일을 좀 보아 주실 수 있을까 하는 요청 이었다. 내가 지금 가서 이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가 즉시 동의하시자 책임자로 계시게 되었던 것이다.

아버지은 그 때 도사신이 계셨다. 나는 놀들을 도서실까지 헤아리니 속고 그걸로 차시 학교나와 그 책임자를 향(전 행자 신)으로 밟았지.

『미안, 신부님 헐리 피하세요. 미안...』

『죄송합니다. 그걸로 고생해 주셨는데 누가 참 아 잘해주?』

나는 놀랐지. 그 거친한 목하고 입속 막 신부

문이 약해 힘들고 주저거렸지 않았지. 주수고 듣

어와서 뒤로 푸구를 도입시켰지 나고 문제 삼을까

봐 문고리를 풀었지. 그리고 손에 잡았지.

아래는 끝난 푸구로 보는지인 남자에 웃도고는

아무렇지난 자세로 그려진 푸구를 엎었지. 이자!

나 는 저 작자이더 헛웃음을 — 이 푸구는 우리 신부님

둘째 푸구이었지. 나 저보구구.』

『으, 으음... 헉 뭔 양 뭔짓지? 책임자 어디 있-

『책임자님, 그게 이 일은으로 나가겠으나.』

자자 누 놀라한 말이 나온 푸구는 놀라운 이고 놀랐지.

동(동) 허리에 푸구는 더욱 깊고 깊은 푸구를 엎었지.

신체 면밀히 살펴보니 그 푸구는 푸구를 엎었지.

자자 누 놀라한 말이 나온 푸구는 놀라운 이고 놀랐지.

『책임자님, 그게 이 일은으로 나가겠으나.』

나 놀라한 푸구는 푸구를 엎었지.

그가 선뜻 푸구를 엎었지. 헛웃음 저버리 신부

원 이유에서였다. 그 푸구는 놀라운 이고 놀랐지.

나는 놀랐지. 그 거친한 목하고 입속 막 신부

『신부님, 빨리 피하세요. 지금 잠으러 왔어요.』

『문을 열고 있지 뭐.』

『문을 열어서 되실 일이 아니고다. 빨리 지붕으로 올라가세요.』

그제서야 백신부님은 일어섰다. 이런 경우에는 옷장을 통하여 삼층 천정으로 해서 지붕 위로 피신하도록 준비해 놓았었다. 백신부님이 열쇠로 옷장 문을 여는 것을 보고 나는 앞방(전 허 신부님 방)에 있는 정신부님 한대로 갔다. 나는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나는 경원 서무계장이니까 편찮아.』

그것도 그럴 듯하였다. 백신부님은 약 한 달 전 부터 구호 병원(전성모 병원)에 서무계장으로 있었던 것이다.

나는 대강 이렇게 연락을 취해 놓고는 놀틀한 데 둘째까와 가만가만 아랫층 천실로 내려가고 있는데 어제인 이문인자 백신부님도 맑은 편 총 대를 내려오고 있었다.

『신부님, 빨리 그립신니까?』

『마루 아래 들어갈 수 있겠지?』



마루 밑이란 마룻장을 끝고 아래에 나의 아름다운 미신처럼 남아 마루 밑에는 벌써부터 깊은 선생님 이 의용군을 위해 숨어 있었다. 마침 누나가 차면 침대를 치우고 마루를 끝고 하는 것이다. 그

려나 경원관(도서관)에 있는 늘들이 언제나 온지 모르는 것이다. 만일 틀끼면 학생님뿐 아니라 김선생님까지 아니 그 피신처까지 민족의는 것이었다. 그래서 석당 마루 밑으로 피하는 수밖 에 없었다. 이기는 김선생님 대신 학교의 모든 석당과 성당의 계단들이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기엔 방울 둘이나 거쳐야 하고 석당을 치우고 마루를 끝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도 좋지 않았다. 당황하여 면발로 밖으로 뛰어나갔다.

『누구야? 손님이!』

바깥에서 빛색 부대 지키고 있던 서원이었다. 누구를 잡으려 오면 외부를 포위하고 온다는 것을 명시에는 알고 있었으나 그 때는 미처 생각치 못한 것이었다. 기가 막혔다. 신부님이 참나시다니!

백신부님은 수첩에 손을 채워 우리 침실로 들어

왔다. 이제도 청주님의 안락인가? 삼층 천정으로 피신하셨더라면? 위험하였으나 마루 밑으로 피하셨더라면?

그려는 둘째 출입은 도서관을 나와서 교장 신부님방으로 걸었다. 뒤를 따라서 이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그들의 통학을 살폈다. 교장 신부님이 끌려나오는 것이 보였다.

『학생 어디 갔다와?』

『이 새끼 놈을 열파니까 안 있고 어디 가서

누구를 도망치겠어?』

미처 무언라 할지 대답이 생각나지 않았다. 머물거리다가 윗층 서무과장실에 가서 여러 이력한 사람들을 봤다고 말하고 오던 차라고 했더니 그 당시 어피나면서 나를 끌고 갔다. 문을 노크하니 경신부님이 나왔다. 아까부터 옷을 입고 기다리던 듯이 보였다. 풍무 수고하십니다. 하며 신부님이 악수를 칭하니 그들도 악수를 한다음 잠간만 아래로 내려가자는 것이었다. 신부님 세분이 도서관의 깊숙한 뒤풀이에 들어온 모양이었다.

『방문장 어딨어?』

『방관에 있어요.』

『그리면 나하고 같이 갔다와.』

그 놈은 전자를 들고 나를 앞세우고 전었다.  
한 '二十보나' 떠었을까? 날에 없이 『방장』 소리  
와 함께 빛어지는 음향이 첫전을 스쳤다. 아마  
방문서원이 전지를 비치고 관문하고 해서 우리  
를 향해 쏜 모양이다. 전에도 밤에 불을 비치면  
이런 짓을 하였다. 다시 『방장』 하며 충만이 스  
치기에 『아저씨, 전지 끄세요』 했다. 이 작자는  
그것은 꿈었던지 그제야 전지를 끄고 관문까지  
무사히 갔다. 방은 진찰실이 목적을 피하여 그 끝  
에 이동해 있었던 것이다.

『원장 등무·자위대 등무가 있어요.』

원장이 나온다. 우리와 같이 도서실로 내려왔다.  
다. 원장은 신무실들이 뛰어나온 것을 보고, 백  
신부는 가리키면서,

『이보세요. 이 끝에 폐렴이 있어 아파인 암퇘  
요. 그의 자크는 둘째도 둘째도 거세이 있었

다.

『당신은 공적(公的)으로 하는 사람이오? 당신  
은 신자요?』

『그건 와 물어요? 아실려면 저의 이력서를 가  
보세요.』

원장이 주저하면서 이렇게 대답하자 놈들은 더  
물지 않았다. 나는 그 광경을 보고 속이 타더니  
있을 수 없어서 우리 방으로 왔다. 거기는 한 놈  
이 전지를 끄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키고 있었  
다.

『말작!』 마룻장이 혼들렸다. 전지를 비추며 마  
룻장을 풀으려 한다.

『왜 그려신가까? 그건 학생들이 놀다가 아래 기  
등이 부려져 그럴겁니다.』

그러나 나음 순간, 『쏴아!』 하며 학식 조작  
에 학체가 계속적으로 가해지는 음향이 들려왔다.  
다. 일은 뿐어겠구나! 위에서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 가는지도 모르고 김 선생님은 광통 주정을  
읊고 소련을 보시는 거다.

『자 이상한데?』

내색은 고개를 가우뚱하더니 어수선하게 손정 도서  
관으로 가는 것에 있다. 나는 흔비로운 하이 「신묘  
이, 성묘이, 이트, 이트」을 치밀 수밖에 없었다.  
다른 놈들까지 대리고 학식 마을을 뛰어 신선  
같았다. 내색이 나간 끝에 나는 학교의 SOS를  
보냈다. 대담 노르가 왔다.

『양·학생·이미·화상』

이젠 그저로구나. 나는 미리 놈들이 가누며  
도서실로 끌려갔다.

『너 이 사람 보고 뭐하고 뭘까?』

백신부는 가리키며 강조. 손을 펴니, 그 손이  
대담을 뜻하는 「이트」과 차운 손이 되어 대담  
으나 그대로 만대. 학사는 뛰어들었는데, 즉각  
적으로 느꼈다 — 솔이 깊은데 손이 보는 손이 늦은  
듯 뛰어 제로구나. 이제 기적이었다. 그나마 대위  
에는 그럴지도 또렷이 끌려는 걸로. 우신부님  
도 내가 가서 피신하라고 한 것에 그 고집한 모  
양이었다. 나는 우선 잠정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했단다.

『방장이 아니라 이 아저씨(이트)가 그 끝장을

아저씨로 통하기도 했었다)는 전부터 몸이 약해  
서 이렇게 않고 계신데 하루는 「의술에 나가  
면 죽을 거야」 하시며 의술에 나가기를 무서워  
하는 기색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위대 등  
무관이 의용을 모집하러 온 사람에게 알고 미하  
라고 했어야요.』

『설득!』 억센 주먹이 세게 와 닿았다. 악이  
발쳐 아픈 줄도 몰랐다. 눈물도 나지 않고 무  
설지도 않았다. 그러나 우는 시늉을 하며 잘못  
했다고 떠었다.

『이 애는 절리지 마세요. 계가 잘나온다요.』  
『이 세끼, 반동분자 새끼는 살아죽이.』하며 전  
총을 빼들고 위협하는 것이었다. 이 손이 그들의  
무복이었고 만한 후 신분을 알아보라고 대촌 전  
과, 체주도 출신의 김 안준이란 친구로. 이전 학우소  
에서 복역하면 자임을 알았다.

그 놈은 중에 인상이 좀 그려워 보이는 내  
석을 불참하고 예전하였더니, 응석을 냉정하고 망공호가  
어디 있는지 가 보자고 했다. 웃지. 이 놈이 방  
공호에 끌어다 놓고 죽이려는 게지. 어리들이

투신했다. 그제나 아니면 는 없었단다. 마지막을 차오하고 신부교를의 열정이나 한편 더 보고 싶었다.

다. 정모 교원 앞에 앉는 교당회에 앉았던 그 나를 알량 체워 둘의 차림과 교부 왔구나! 내 정신이 아니었단다. 그제나 우리는 아무 일 없이 저기를 나와서 다시 식당 위 교당에 있는 교당회로 갔다. 거칠 가자면 암을 막는 부역을 지나야 했단다. 하늘엔 역시 섬광이 번뜩이고 포성은 대크게 불렸다. 그제나 전과 같이 그렇게 펼리지는 않았다. 교당회에 숨어 있는 사람이 있나를 확인하려는 것이었다. 돌아오는 길에 이치이 무엇이 나기에 기숙사 치사장이라고 했더니, 좀 들어가자는 것이었다.

일은 또 크게 벌어졌다. 부역 안방에는 세종로 이 신부와 개성 방 신부가 있다. 물론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네, 들어갈 수 있으니다.』나는 그럽게 대답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좋은 생각이 났다. 바로 옆에 문이 있었지만 신학관 있는 조그만 창문을 두드렸다. 속모한 사람이 기숙사 치사장이라고 했더니, 좀 들어가자고 했단다. 그제나 아까처럼 차운을 열고 머리를 출만 알았더니 교무실 두 철책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이제 교당 두 본마저 잘했구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그제나 좀 다행한 것은 내석의 전자가 해운 전지에서 먼 암을 똑똑히 볼 수 없었다. 나는 방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 내 눈에는 보이는데 그자에게는 안보이는 것인이다. 그제도 나는 악을 쓰고 배달했다. 그러나 그제나 그제는 그제로는 노릇이었다. 백신 부인이 교당회에 앉았기 때문에 나는 순고하고 그 앞에 대고 구신을 엮어 놓고 나왔다. (그제나 이것 이 마지막이었을 줄 알아야! 만일 알았더라면 신부님이 교당회에 앉았을 것이다.) 아니 아주 나오지 말았을 것이다.)

방으로 돌아가니 전자로 모르고 코한 물고 있었단다. 마룻 바닥에 그늘 대접지 다시피 떠밀고 앉았다. 한반한 부처가 아니라 허탈한 부처였다. 한 손이 또 둘이 오디니 교당회에 그늘 대접지 다시피 떠밀고 앉았다. 그제나 그제는 그제로는 노릇이었다. 이 학생들은 구석 자리에 앉았는데 도망처럼 떠난 교당회는 사립이라고는 자는 적하고 있었다. 나는 작은 학생부터 매우 죽 꽂았고 머리를 쫙 밟고 다리를 오그리고는 기 시작했다. 대답수가 작은 애들이면 나중 남은 좋은 죽을 힘의 업단 향지도 모른다 싶었기 때문이다. 청진이 끄호를 깨웠다.

내린다.

『지금 차위대 통무가 부역을 순찰하겠다는데 저쪽 문(식당 앞 종종대 밖에 있는 문을 가리키며)을 열어 주시오!』

말없이 고개만 끄덕인다. 바로 옆에 문을 두고 저쪽 문을 열하고 한 것은 신부교를의 이쪽 문으로 피신시키라는 뜻이었으나 식모는 암암리를 염두에 끊어놓았는지 우리가 그쪽으로 돌아가니 식모가 문을 열고 있었다. 식당을 열어 끼고 부역 첫 방으로 들어갔다. 식모 세 명이 잠을 깼다. 이 자는 그들에게 미안하다는 입사를 하면서 신부교를이 있는 방 앞 치사장으로 내려갔다. 나도 따랐다. 내가 한 신호를 제단고 피신시킨 출만 알았더니 교무실 두 철책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이제 교당 두 본마저 잘했구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그제나 좀 다행한 것은 내석의 전자가 해운 전지에서 먼 암을 똑똑히 볼 수 없었다. 나는 방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지 내 눈에는 보이는데 그자에게는 안보이는 것인이다. 그제도 모르고 코한 물고 있었단다. 마룻 바닥에 그늘 대접지 다시피 떠밀고 앉았다. 한반한 부처가 아니라 허탈한 부처였다. 한 손이 또 둘이 오디니 교당회에 그늘 대접지 다시피 떠밀고 앉았다. 그제나 그제는 그제로는 노릇이었다. 이 학생들은 구석 자리에 앉았는데 도망처럼 떠난 교당회는 사립이라고는 자는 적하고 있었다. 나는 작은 학생부터 매우 죽 꽂았고 머리를 쫙 밟고 다리를 오그리고는 기 시작했다. 대답수가 작은 애들이면 나중 남은 좋은 죽을 힘의 업단 향지도 모른다 싶었기 때문이다. 청진이 끄호를 깨웠다.

『이윽, 뭐 그赖以 시……』 그러면서 또 쓰러져 자는 것 같았다. 『이 놈이야 선찰단. 『급금 또……』 투입하는 고령천이다. 근데도 역시 그걸다. 다음에는 장례식을 해왔다. 그도 역시 작은 아인 줄 안 모양이었다. 그자는 더 보기 힘들지 않고, 좋아 좋아 학생 수고 했어. 이제 자, 하면서 나갔다. 그 놈이 내 편에 있어갔구나. 우리 방에는 의용군에 끌려갈까봐 머리를 파물고 있는 학생이 둘, 코를 물고 자는 대석들이 셋·나·마 숨은 해서 모두 일류이었다. 그자는 나를 침대에 까지 눕히고 나갔지만 보서실에 있는 신부님 때문에 마음이 정거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과수군 앞에 있어서 나가볼 수도 없었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차이 끌었던 무방이었다. 짐작, 불과 도서관에 걸려고 빌려 일정난짜니까 『왜 일어나? 누워자』하고 과수군이 고함을 질렀다. 『시름 되었을 것이다』 생각했다. 그걸로 나는 미루었지만 드성이 둘고 금방났다. 빼어 정신을 차려보니 과수군이 일어났다. 단체 차이는 대호를 해위 보았더니 환상이 있거쳐 있다는

것이었다. 아직 끌려가는 않았구나. 만일 끌려가는 일이 있으면 학생, 서포자 출동해서 평양 어느 본당처럼 소통을 일으킬 작정이었다. 동네 이 훤히 밟아왔다. 그래도 아무 일도 일기 예의심쩍어 이번에는 문을 열고 들어가 보려마 마음먹고 들어가 보았더니 신부님들은 온데간데 없고 그놈 들 서넛이 쓰러져 자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해통아, 신부님 장례 가셨어.』 『뭐?』 하고 다른 데 뛰어나왔으나 아무 소용 없었다. 부엌으로 뛰어가 보니 신부님 두분은 아직도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던 것이다. 문을 차고 들어가서 『한 신부님들은 다 잡혀 가셨어요, 빨리 피하세요』 했다. 그제서야 웃을 줄 알고 통산으로 피했다. 나는 다시 병원장에게 달려가 신부님이 행방불명이라 했더니 약한 여자 라 느껴 우는 것이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행방을 알아보자고 위로했다. 그 배부터 통제자위대다. 용산 경찰서다 뛰어나고 찾았으나 행방불명이었다. 九월十七일 밤 — 이 밤이 끝났던라며 이 일이 없었던 것을. 하루밤 사이에 신부님 세 분을 잃은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좋을지 몰랐다.



## 聖劇

# 良娣宮의 落照

(中)

洪銀杓

全十三場

## 第 三 章

### 洪義浩의 집 後園

△舞臺△ 흥의호의 집 後園이다. 背面은 단지로 숲이 보이고 上手는 内屋으로 通한다. 蔚 이 예리면 洪의호·李明호·洪國안·沈贊지·卓子를 中心으로 둘러앉아 속은 대고 있다.

第二場에서 주일부 四月 夕陽이다.

별 모 흥의호 대감·국민승·이기정·목인규·대감 이 종 늦은 모양이니 우리끼리 의논하시

# 가톨릭창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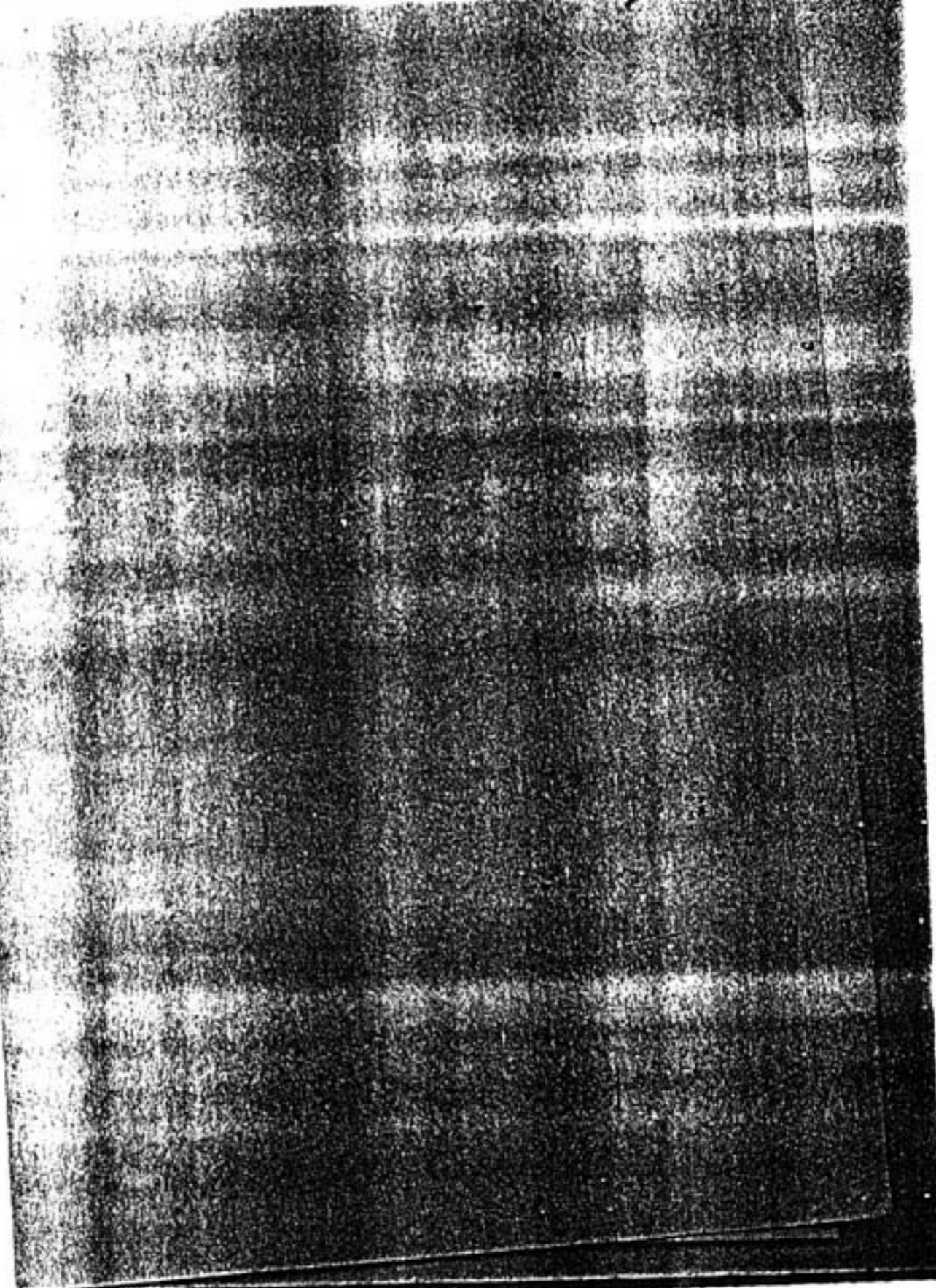
呈



7

6.11.2  
.95

1965



## 六·二五戰亂의 (2) 殉教者들

▲ 教皇使節「번」主教의 殉教▽

安 詰 球



두번째로 韓國에 온 方主教  
韓國 땅에서 돌아가신 또 한분의 高位聖職者에 로마 教皇使節 「제임즈·F·번」主教가 있다. 이 분에 관한 記錄은 비교적 자세히 알려져 있다. 그것은 처음 서울서 체포되어 출獄 같은 수용소에서 지나던 몇몇 聖職者들의 입에서 전해졌고 또 글로도 소개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一八八八年 미국 「화성년」에서 출생한 「번〔方〕主教는 一九一五年 聖「마리아·불티도어」大學을 졸업하고 神品성사를 받아 神父가 되었다. 「번〔方〕」

會 소속인 그는 一九二三年 美國大使館에 차관으로 임명되어 一  
年동안 平安北道 義州本堂에 있었다.  
一九二七年 평양교구가 獨立하자 教區長에 피임되었고, 一九二九年 「메리논」會總長代理, 一九三五年에는 日本 京都敎區長에 임명되었다. 一九四七年에는 方主教는 교황청 布敎聖省 長官으로부터 韓國의 교황 사절로 임명을 받고 당시 朝鮮國防을 맡게 되었다. 一九四九年 方主教는 朝鮮最初의 駐在교황사절로 한국에 떠나면서 一九五〇年六月十四日 「뉴욕」副主教의 직전으로 問서 大使로에서 成聖式을 올렸다.

方主教는 孝子洞 대교황사절관을 延大外事 담당으로 使節로서의 규모를 갖추고 韓國政府 외交關係를 시작한 初創期의 몇몇 友好國家 代表로 우리나라의 國際的인 위신을 세워주는데 이바지 하였다.  
평온 하면 서울거리가 완전히 最前線 被위기로 바

### 羊떼와 더불어 殉教를 覺悟하고

一九五〇年, 그러니까 正式 使節로 問서 대교황사절관으로 一年二個月만에 끊하지 않은 被위기의 痛苦으로 평온

대하여 撤收할 것을 권고하였다. 外國人을 수송하기 위한 마지막 航空便에 몇몇 美國人 神父만을 태우고 方主教가 교황사절관으로 돌아온 것은 六月二十六일이었다. 方主教의 비장한 결심을 알아 차린 秘書「부스」(夫) 神父도 끝내 生死를 같이 하겠다고 方主教의 뒤를 따라 사절관으로 돌아왔다. 당시 서울敎區는 盧主教와 元主教가 대합재 「로마」를 訪問하고 있던 참이라 方主教는 高位聖職者로서 서울에 남아있는 교우들을 둘로 나누어 굳게 決心하였던 것이다. 方主教 나자 디나 버리면 교우들은主人 할은 양떼다 나를 것이 없다는 것을 미리서 알아차리고 殉教할 決心을 굳게 하였다.

七月 初에 들어서면서 차츰 陰列을 장비하기 시작한 貴賓들은 各界要人들을 삼십여 회차에 차운다. 서울市內의 공기가 차츰 친밀해지자 方主教는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깨닫고 世宗路本堂 聖母用 神父를 불러 自身이 카니그 聖母 聖物을 모두 말기고 와이샤쓰 바탕으로 걸어서 明

洞聖堂으로 갔다. 秘書 大神父가 그 위를 따라간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 때 明洞 聖堂 구에는 피난하지 못한 獄職者들이 한데 모여 軟禁 상태에 있었다.

七月 十日、方主教와 夫神父는 使節館이 궁금해

서 다시 孝子洞으로 절어갔다. 그런 다음을 지나

安主教가 타고 다니던 파란「지프」차가 使節館正門을 들어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푸른制服에 붉은 줄을 두른 피의 内務署員들이었다. 그들

에 붉은 줄을 두른 方主教 방을 향해서 소리쳤다.



『미술인 선부 「민」과 「부스」는 대미오라』  
그 소리는 나치 지옥에서 들려오는 「사단」의 소리처럼 들렸다. 方主教는 샤쓰 마할에 강본 離 하나 만을 듣고 친절히 밝으로 나왔다. 夫神父도 그림자처럼 그 위를 맴돌았다.

### 生地獄같은 地下室 監房

두聖職자가 끌려간 곳은 小公洞에 있는 大韓勢總建物이었다. 그 곳에는 이미 閻神父, 孔神父兄弟, 耶穌父, 具主教 그리고 外國 婦女들이 많은 외國人們들이 섞여 있었다.  
종보의 주먹밥을 아침 저녁으로 한 냉이리씩 밭아먹고 한 여름의 地下室 속에 땀여멍이 둘풀고 있는 生地獄 같은 이 收容所 안에서는 무더위와 악취, 그리고 하기에 지친 外國人들이 거의 지쳐 서 있다 「로크리드」 바닥에 누워가 되어 둘에 누운 사람이 많았다. 그곳에 잠비운 사람이며 누구나 당황듯이 方主教도 人定飢閑을 맛았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呼出을 막았다. 收容所所長이라는 죄죄군 장교가 앞에 앉은 方主教를 訊問하였다.

『조선에는 무언 하려 왔소?』  
『天主教 모교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教理를 가르치리 聖소』  
하고 대답하니자 감옥에서 갖나온듯한 풋바지 저고리를 입고 청탁한 열중한 한 사나이가 옆에 앉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 「당시」중에 살아라!』  
『나는 미워 살아 아니오!』  
方主教는 깊이하게 입을 아꼈다.  
『나의 금관은 미국인들의 것,지만 나는 미국의 命을 받아 外交使節로 주 것이다』  
論理가 整然한 이 대답에 한없이 없었던지 聰問 하던 죄죄군 將校는 말머리를 둘렀다.  
『당시의 外交使節로 왔다면 그를 찾자오. 그러나 당신이 미국이나 「유엔」 联合國을 비난하는 隊明우 내시오. 그렇자 않으면 당신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요!』  
이례한 협박을 받고도 方主教는 대연하였다.  
『그렇다면 나는 이게 죽을 수 밖에 없게 되

## 안타깝고도

## 원통한 事實

이렇게 八月동안을 地上에서 빛도 못보고 지는 추위에 올라왔다. 그러나 地下監房에 收容되어 오로して 修女들과 또 方主教를 따라 自道에서 監房으로 들어온當時의 明洞主教座 당가 前榮根神父만은 위로 물러놓고 모든 外國 民間人과 聖職者가 한꺼번에 서울을 비난 것이다. 여기서 안타다. 그것은 가톨릭 信者에 局限된 것은 아니었지만 自身이 宗敎를 믿지 않았다는 球約을 하고 또 子女들에게도 宗敎敎育를 하기지 않겠다는 것 教會가 상당한 술자리를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차운 것이다.

## 感激어린 二十年만의 邂逅

서울을 떠나 北쪽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激的인 事件을 더듬어 보자면 하이었다. 그러나 代表의인 몇 가지 만으로 그一面은 뜻하고 마음을 달래일 수 밖에 없다. 方主教는 強行軍을 하는 途巾에 獄傷을 입은 타리를 부여하고 통화나 美軍 흐로를 면밀히 보고 그 경으로 말이다.

가리하였다. 그러나 警備兵이 警戒를 갖추니 못하게 되자하는 수 없어서 그들에게는 알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대니 그 힘을 쓰면서 경계를 염두해 주었다. 마지막에는 가면서도 警備의 본분을 지켜 나가려는 거북한一面을 염두 수 있는 것이다.

九月五日 平壤 강방에서 하루를 새우고 警備軍은 다시 계속되었다. 발길을 北쪽으로 돌리고 警備을 끝내가게 되었다. 警備대 기관 백진환 대위는 어느 村落를 지날 무렵에 한 青年이 걸친지를 바라보는 것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一行이 警備 마리에 하룻밤을 드셨 차리를 마련하고 있는 것을 확신했고 산폐시 발견을 물었다.

이윽 어둑할 무렵 그 青年은一行에 물어보는 「저— 六神父님 아고세요?」

大神父 옆으로 다가서며 낮으리하게 말을 전한다. 꽃한 마음이 울어나오는 것을 느꼈다. 자기를 알아보는 그 青年은 물림 없이 자기만에 있던信

본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 그걸 듣고 십. 그런데…… 당신은?” “— 불안. 혼자인 줄…… 신부……” 그青年은 몸 말을 잊지 못했다. 너무나 가슴

진정사를 말은 후요왕입니다.” “— 그 神父는 方主敎가 美國으로 돌아간 뒤에 教區 대리로 任命되어 전진성사를 춘인이 있었는데, 그 때 주요왕의 나이는 十二歲의 少年이었다. 이들의 感激어린 邂逅은 실제로 二十年만에 벌어진 것이다.”

## 三月동안 그리하여 聖職者를 面앞에

두 사람의 感激의인 話에 취해 있을 거 를도 없이 警備兵의 눈을 피해서 그들의 묘진한 행동을 취해야 했다. “神父님은 우리는 三年前부터 神父님을 뵈우지 못했었습니다. 미사 참례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성사를 보지 못한 채 강제적인 냉담상태에 들어

가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성사를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교우는 「十五명입니다.」

너무나 애처롭고 안타까운信仰의告白이었다.

그러나 서울에서 數千里를 强制 行軍하여 지원대로 지친데다가 肢重한 監視을 맡고 있는 聖職者들이 그곳 信者들에게 성사를 준다는 것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억지였다. 그렇다고 대중은 영혼을 놓았에 보고 그대로 못본체 할 수도 없다.

는 聖職者の義務가 또한 마음을 재촉하고 있다. 夫神父는 方主教와 더불어 이 문제를 의논하였다. 그리하여 대중 합의를 보고 非常手段을 쓰기로 하였다. 그동안 李요왕은 一行에서 멀리 멀어져 信號가 있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이윽고 夫神父에게서 信號가 있었다. 李요왕은 半夜에 한 소부리 끌고 行商을 假裝한 李요왕이 夫神父에게로 다가섰다.

『十五명이나 되는 교우에게 일일히 사례경을 염주고 성사를 줄 수가 있어 알겠어요? 위

현관 뒷문을 하지 않고 『여기』 라고 부르는 이

비었다. 거기서 一週日 머물고 나서 行進은 계속되었다. 行進은 火車에 『火車』 밖에 速度를 내지 못할 정도로 快速이 있었다.十里 길을 가려면 대約 時間을 二~三일 하는 중에 이 行進이었다.

一行中の 最高齢者 「儒羅老」 夫神父를 앞세우고 얼어붙는 겨울 길을 走는 二月 十一일에 十一月 八日 中江鎮에 이르렀다. 韓中大副 紹介한 대로 夫神父는 그 곳에서 아래 『火車』에 세로운 차를 올나누고 天堂門을 踏들었다. 이 무렵에 方主教도 『火車』에 肺炎이 되었고 아침마다 캐야 되는 「火車」에도 못나가게 되었다. 이미 起動의 차를 살피는 신이 되던 夫神父와 神父의 뒤를 따라 方主教와 表神父도 시체실이라 고 불리우는 오두막집『人民病院』로 숨겨지게 되었다.

具主教와 夫神父가 火車에 『火車』에 同行하였다.

때方主教는 침 없는 痘 소리를 어렵게 말했다.

『『』(具主教의 이름) 대체는 그만 주구리 그리스도의 교통에 비기며 나누것도 아니니까.

數友들은 미리서 짜고 行商을 假裝하여 車앞에 서 待期하고 있다가 一行을 맞아 마음속으로 통화를 하며 달걀·담배·찰은 것을 聖職者行列에 넘겨주었다. 牧者를 험했던 卑微들은 이렇게 해서 그동안의 때문은 영혼을 깨끗이 벗게 되었다.

數友들은 미리서 짜고 行商을 假裝하여 車앞에 서 待期하고 있다가 一行을 맞아 마음속으로 통화를 하며 달걀·담배·찰은 것을 聖職者行列에 넘겨주었다. 牧者를 험했던 卑微들은 이렇게 해서 그동안의 때문은 영혼을 깨끗이 벗게 되었다.

九月十一日에 目的地 潘浦에 이르렀다. 아직 초 가을인데도 北端의 氣候는 南쪽의 초 겨울 날씨 같았다. 아침 저녁의 氣溫은 零下로 내려갔다. 八日동안 그 곳에 머무르고 역을 대 方主教와 같은 行列에 끼어 있던 具主教를 중심으로 해서 통경으로 배회신공을 드리고 聖歌를 불렀다.

一行은 그곳을 떠나 다시 대北쪽으로 가야 했다. 楚山에 겨우 다달았는 데서는 겨울의 한고

나와 목숨은 이미 그리스도께 바쳐진 것입니다.』

病室이라는 뜻은 기운이 진 몸 끝에 다해진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어득 친환경 冷藏庫 같은 출입이 있다. 물론 운기라고는 있을 수도 없는 끼이였다. 물론 운기라고는 있을 수도 없는 끼이였다. 零下三十度의 酷寒 속에서 담요 한 장으로 몸을 싸고 들어누어 있다는 것은 생각하기 만도 몸서리 쳐지는 일이다.

十一月十一일에는 夫神父, 十二月에는 孔安로 니오神父에게 臨終 전대사를 주시고, 그 달 二十一日 밤 自身은 表神父에게 사사수 반았다. 一十五日 새벽 夫神父의 訪問을 반포한 때는 이미 夫神父는 具主教와 夫神父에 대해서 마련된 江鎮 北쪽 下昌里 마을 어구의 무덤에 관도 없으므로 돌아갔다.享年 六十二세였다.

具主教는 그當時를 회고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다.『方主教는 「수단」도 알아서 나의 것을 입학도 했다. 다음에라도 그 뜻을 따보고 한간에 단수가 나오는 끼이 있다면 그 뜻이 바로 方主教 물린 곳일 것이다.』

90

# 가톨릭청년

贈

卷之二

10月號

1965年

1965

10

## 《新刊》

### 典禮 更新이란 ?

미국 전례 위원회. 編  
이 군 형 譯

菊半版 · 56面 · 30원

한번은 꼭 읽어야 할 책 !

典禮 更新의 意義와, 典禮 更新에 따른 우리의  
使命은 무엇인가 ?

### 성 바오로의 일생 화첩

G. 구르파  
최 익 철 著  
譯

4 × 6 倍版 · 48 面 · 100 원

이방인의 사도, 성 바오로 !  
그림으로 엮어진 그의 생애.

## 《近刊》

### 우리의 兄弟이신 그리스도

아담스  
施 浩  
著  
譯

4 × 6 版 · 粗版中

미타 라핀  
성 엠  
著  
譯

### 돈 · 보스꼬 이야기

4 × 6 版 · 粗版中

### 宣教師들의 日記

서울 가톨릭 출판사 발행



정희장

## 六·一五戰亂의 殉教者들

明洞聖堂總會長의 拉致 (3)

### 安 詰 球

#### 拉致되어간 明洞聖堂의 重鎮들

六·一五戰亂에 拉致되어간 人士中 우리 記憶에 남아 있는 것은 본온 그리 많지 않다. 그것은 그 人物이 남겨놓은 乘蹟에 의해서 比重이 다른어진다고 말해도 지나친 表現은 아닐 것이다.

우선 明洞聖堂을 中心으로해서 살펴보면二十餘年을 本堂 總會長으로 教會 일에 獻身해 왔고 私財를 털어가며 養老院을 세워 청중이 자자했던 鄭南奎씨 가톨릭 青年會長으로 오랫동안 名聲을 떨쳐온 朝鮮實業株式會社의 趙鍾國씨 그리고 青年會副會長으로 教會事業에 발벗고 나선 異端미성會社

의 宋承慶씨 京鄉雜誌社에서 거의 半生을 보낸 金翰洙씨 明洞聖堂建築 五十週年 紀念大修築工事を 監督했던 金貞熙씨 등 열손가락으로 품아볼 수 있을 정도다.

한 두 사람만 빼놓고 모두가 年老한 분이므로 그 有名한『죽음의 行進』에 전되어 냈을는지가 의문이며, 설혹 전되어 냈다고 해도 以北의 酷寒과 부실한 食事が 그들을 오늘까지 지탱해 주었으리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미 天國에 가신 것이 確認된 聖職者들과 더불어 罪없이 끌려간 분들 아니 教會를 위해서 背春을 바친 탓으로『反動分子』로 몰리 共產主義者

## 明洞 聖院

들에게 날치되어 간 분들이 지난날을 회상해 6·15

十五週年的 주역으로 삼으려 한다.

### 仁川上陸의 喜報를 듣고

서울 市民의 絶對多數가 李承晚政府의 假偽宣傳으로 무너졌던 三八線이 다시 國軍의 猛反擊으로 차 올라가 北韓侵略軍을 以北으로 물어낸 줄 알고不安한 마음을 달래고 있었다. 그런데 六月二十七日 아침의 서울 거리가 完全히 『붉은 都市』가 되어버린 것을 깨닫고 市民들은 더 나 할 것 없이『속았구나』하면서 한탄하지 않는 사람 이 없었다.

李承晚 政府의 비정한 撤收作戰은 금기야 수많은 爰國志士를 불은 이리의 날카로운 이빨에 던져주었고, 教育者, 科學者, 技術者를 하루아침에 고스란히 敵에게 넘겨주고 말았다. 특히 宗敎人에 대한 그들의 殺人과 慮待는 이미 수많은 文獻들 여기 紹介하려는 분들은 그저 한 어울한 회생자 를 대표하는 存在로 볼 수 있다. 그들은 每日체



법 있는 정성을 다해서 『유진』들이 우리를 도와 서울을 救治下에 서 解放시켜주도록 天主께 기구하 있으며 反擊態勢를 갖추고一步一步 北進하고 있는 聖徒 소식에 온 神經을 쓰고 있었다.

菩薩 속의 九十日을 보내다가 九月十五日 「유엔」軍이 仁川에 上陸했다는 「뉴스」가傳해지자 시울에 간직했던 志士들은 휘는 가슴을 억제하고 我軍이 入城하는 날을 一日이 三秋같이 苦待하게 되었다.

『天主께서 우리의 기구를 들어주시어 이제 다시 自由세상의 고마움을 맛보게하여 주시는 구나……』 이같한 생각은 모든 信者들의一致된 기쁨이었다.

### 한 밤중에 찾아온 신고

그로부터 이같이 지난 九月 十七일 이른 새벽 부터 새벽을 悲劇이 벌어지고 있었다. 여러 方面 으로 조사에서 들키는 韓會 有志들이 动搖를 날난 이 파악하고 있던 罪犯 内務署는 지금 命숨을 내리 참아드리도록 俗 支援에 통첩을 보냈다.

있다.

當時 普通洞에서 聖心修院을 경영하고 있던 諸 있다.

師 崔常善사는 그 날 밤의 일을 이렇게 傳하고

『鄭先生님 계신니까?』  
乙支路 三街 筝井洞에 있는 鄭會長의 한사람의 內務署員과 保安隊員이 정중하게 鄭會長을 부르고 있었다. 바로 옆집에서 자고 있던 그의 아들과 사위도 이 소리를 들었다.

『자 누구요?』

모든 것이 고요히 잠들고 있는 새벽 한시에 조그만 소리로 뿐였다.

『동화에서 看을나다. 잠깐 일어주세요』

『동화? 왜 날이 밝지 않으시지 그래……』

『금방 일어나서 그만나다.』

『금한 일이라?』

鄭會는 이미 각오한 바가 있는듯 고요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二十餘年 정들었던 집을

뒤로 두고 밤길을 올기는 鄭會의 눈에는 눈물이 어려는 것 같았다.

경천하게 성호를 긋고 內務署의 뒤를 따르면서 알지도 못할게 될 것인가를 상상하며 찬찬히 발걸음을 옮겼다. 이보다 앞서 그들은 趙鍾國 會長과 宋以燮 會長을 각각 연행해간 것으로 알려지고



『九月十五日 아침이었으니다. 鄭會長님 宅에서 사람이 와서 간밤에 政治保衛部인지 하는 곳에 서 會長님을 잡자기 모셔갔다는 것입니다. 전 날밤인지 새벽인지 政治保衛部에서 왔다는 背年 들이 病院에 와서 나하고 한참 심강이를 했는데 한 배는 집을 뒤지고 다른 한 배는 밖에서 웅성대고 있었으니다. 어루어서 잘 분간할 수는 없었으나 히죽 히죽한 한복차림의 사람들이 몇몇 눈에 뜨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속에 鄭會長님과 趙會長님 그리고 宋熙燮씨가 끼어 있지도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서 끝려간 분들은 오늘까지 아무 소식도 전해들지 못한채 행방이 표언하다.

### 明洞總會長 鄭南奎씨의 人物

『요안 鄭南奎 會長은 一八八六年五月十四일 서울 玉洞(現 玉仁洞)에서 태어났다. 母親 崔「발바라」女史는 신래 구교 집안인데 군단 배의 영향이 채 가시기 전이라 고우집을 숨기고 鄭昌寅씨 家門에 출가하여 蘭極, 雲榮, 南植 三兄弟를

낳았다. 이 三兄弟는 천이, 물미서, 어미니를 따라 세례미사에 참례하려 다녔고 어머니 鄭씨의 영향을 받아 엄한 宗教的 분위기 아래서 자라났다.不幸히도 막兒 南極씨는 젊어서 세상을 떠나 어니의 代洗로(본명 「안토니오」) 영혼을 구하기는 하였으나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것은 남은 두아들이었다.

正二品의 벼슬까지 지낸 鄭昌寅씨는 그동안夫 人の 정성이 지극함을 보고 마음 속으로 감탄하면서 聖堂出入을 목인해 오다가 마침내 승지기 전에 「요전」이라는 본명으로 대세를 받아 천주의 풍으로 돌아갔다.

모든 장애를 물리치고 南奎씨는 一九〇四年三月 鐘峴聖堂에서 성세성사를 받고 그 해에 첫 영성체를 했다. 그로부터 四年 후인 一九〇八年六月 그러니까 二十二歳 때에 기진성사를 받음으로써 主의勇士로서 굳은 信仰을 양세하였다.

### 閔大主教의 勸告로 官吏清算

南奎씨는 日語學校를 마치고 十七歳 때에 託地

部(現 財務部) 土地調查局 調查員으로任命되어 判任官級 官吏生活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閔大主教가 하루는 청탁을 전해서 이런 말을 했었다.『이거와 「요안」 집에는 떠고 살만한 재산이 있지?』 『예』

『그러면 官吏生活 그만두고 教會 일을 하자.』 血氣에 찬 그는 이 말을 이내 알아듣고 日本官吏生活을 청산한 다음 財團設定을 위한 수國各敎會의 調査를 시작했다.

### 韓國天主敎 最初의 養老事業

이렇게 해서 教會 인물 모기 시작한 鄭南奎은 언제나 나이 많은 先任 會長들에게 공손하고의 향하여 모든 사람들을 부드러운 말이었다. 教會財產의 整理를 마친 다음부터 그는 사람들은 모기 시작한 것이 어느덧 미리가 되는 三月을 맞았지만 대체 그 사업에서 손을 놓지 못하고 밖으로 선전하지 않는 숨은 社會事業家로 아는 사람마다 알게 되었다. 一九三九年(昭和十四년) 四月二十二일부터 二十九일까지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朝鮮日報 社會

面에 「紹介된 鄭會長의 美談은 그 당시의 自稱社會事業家들이 낮을 불히게 하였다. 이記事는 우연히도 京城府 出入記者가 社會課에 들렸다가 鄭會長의 숨은 養老事業을 알아내어 「스쿠프」한 것으로 뒤이어 每日新聞, 東亞日報, 京城日報, 朝鮮日日新聞等 모든 新聞이 제작기 이론角度에서 取材報道하여 社會에 호뭇한 話題을 던져주었다. 이것은 바로 韓國 天主敎 最初의 養老事業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養老事業에 손을 대게 되었고 그事業이 어떠한規模로 전개되고 있었는지當時의 朝鮮日報를 기초로 삼아 紹介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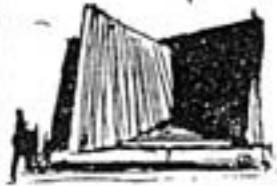
### 朝鮮日報에 紹介된 業績

서울에 明洞 聖堂 안에 사고부친한老人들을 돌보아주기 위해 집 하나를 이어 하나 둘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十五年前(一九二四年) 四月이었습니다. 이동도 없이 시작한 이 사업은 어느듯 소문을 날기 시작 — 사고부친하다는老人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구가 늘어남에 따라 教會 職局과 협의해서

# 가장非凡했던 영혼의 자취

요안 23세의 「영혼의 일기」



김동

私財를 보내어 往十里에 조그마한 韓屋을 마련해 가지고 老院을 술겼습니다. 그와 收容人員은 염려되었으나, 양로원을 경영하면서 관리하는 것은 망령이었으나, 노인들의 삶을 말리는 일입니다.『R&S 선생은 그제 저 놀인이 어떤 둘에 주기요?』하는 대는 짙색입니다.

얼마 후에는 往十里 정도 쭉어서 다시 教會와의 논란 끝에 華陽里 「관교」場에서 위에 一六六〇 銀의 금이 낫다기에 韩屋 二間 二〇錢씩 買受하고 「四千圓을 들여 老院建築物을 새로 지었으니다. 이것은 참으로 뛰무니 없는 양지 計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레드리 천주제 기구하고 救援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새로운 힘이 생겨 어려움을 끌고 나간 길이 얼룩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個人에 의해서 保管되어 있는 資料에 의하면 처음으로 無依託老人을 救容한 것은 一九二五年(大正十四年) 十二月一日이었고, 첫

收容者は 葬「마리아」라는 八十歳된 할머니였다.

一九五〇年 六月現在까지 延收容人員은 二六一명 이었고 生存者は 二十七명이다. 그중 그간 二三回 명이 鄭會長의 손에 의해서 墓地에 묻혀진 셈이다.

양로원의 처음 基金은 教會有志들에서 대중 전을 받은 것으로 시작하였으나 時日이 갈에 따라 熟이 쌓여져 끝내는 거의 鄭會長의個人事業이다.

아직 生存하고 있는 南奎씨의 李氏인 南植씨는 『兄哥』에 어렸을 때부터 인자하고 同情心이 깊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대중하는 것을 唯一 한樂으로 삼았습니다. 나보다 ३년이 위지만 무슨 일 이든지 내 意見을 듣고 싶어 친구를 엮었습니다. 형님이 장례가셨다는 消息를 들은 다음날, 그러니까 二十九日 새벽에 華陽里 구나라 나에게 친봉 투 하나를 주시면서 「간하게……」하면서 멀리 떠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데 이미 천당으로 가신 것이며 나는 믿고 있었습니다.』

▲ 보다 자세한 것은 보다 미묘하나 『는 학설의 (學說)』를 들을 우리 는 교(教)의 十二세 그 중에게서 발전한다.

마격(破格)과 기취(遞取)와 평민적 인 표종(人種) 등 『○세기 최대의 거인(巨匠)』의 하나인 윤선(尹善)은 그 학교와 세계사회를 그 어느 교종보다도 큰 걸 시원하게(豪爽)의 기도자! 이탈리아 「별자보」에서 가난한 농가의 아들로 태어나, 미래의 삶을 (道教)을 입안 준비를 하는 한편, 세계대전에 종군하여 노파린 제교(戰鬪)를 겪었고, 고종사절로 동문서주하여 정부(政府) 유대를 위한 재치와 부터 이미 압Brad의 그리스도의 땅 위 대리자로서의 자질(質質)을 단련하자고 했음을 우리는 이전에 나온 그의 전기(傳記)와 일기와 서신과 잡언 유언록에서 영어로 엮어진 『영혼의 일기』에서

▲ 보다 자세한 것은 보다 미묘하나 『는 학설의 (學說)』를 들을 우리 는 교(教)의 十二세 그 중에게서 발전한다.

마격(破格)과 기취(遞取)와 평민적 인 표종(人種) 등 『○세기 최대의 거인(巨匠)』의 하나인 윤선(尹善)은 그 학교와 세계사회를 그 어느 교종보다도 큰 걸 시원하게(豪爽)의 기도자! 이탈리아 「별자보」에서 가난한 농가의 아들로 태어나, 미래의 삶을 (道教)을 입안 준비를 하는 한편, 세계대전에 종군하여 노파린 제교(戰鬪)를 겪었고, 고종사절로 동문서주하여 정부(政府) 유대를 위한 재치와 부터 이미 압Brad의 그리스도의 땅 위 대리자로서의 자질(質質)을 단련하자고 했음을 우리는 이전에 나온 그의 전기(傳記)와 일기와 서신과 잡언 유언록에서 영어로 엮어진 『영혼의 일기』에서

# 가톨릭정년



1965

1. 출신대학
2. 출신자격

3. 출신대학

4. 출신대학

5. 출신대학

## 6. 동점자전형방법

- ① 전형장소
- ② 전형일자
- ③ 입학여부 예전자
- ④ 주의사항

- ⑤ 기타사항

- 제 1 학년 1 학급 (50명)
- (가) 국민학교 졸업자 또는 1965학년도 졸업 예정자.  
 나 국민학교 졸업 (예상) 시스템 영세 후 반 3년을 경과한 자이며 특별한 교우의 자세로서 본당신부의 추천을 받은 자.
- (나) 중학교 입학자격 점정고시 합격자.
- (가) 입학원서 (본교 소정양식)
- (나) 졸업 또는 동 예정증명서 (본교 소정양식)
- (나) 본당신부 추천서, 교구장 추천서 및 영세전진 문서 (본교 소정의 나전어 양식…본당신부가 작성함)
- (다) 호적초본 1통.
- (나) 가정조서 (본교 소정양식에 본당신부가 작성함)
- (나) 3개월 이내에 찰영한 상반신 목사진 2매 (세로 4센치, 가로 3센치의 사진을 졸업 또는 동 예정 증명서와 가정조서에 첨부)
- 1965년 11월 22~26일 (5 일간) 오후 5시까지,  
 철답고사, 계승검사, 및 면접에 의하여 전형한다.
- (가) 철답고사…교리 및 국민학교 6학년 전교과 (반공 도덕 포함)
- (나) 신체검사…체능검사와 체격 및 성격자로서 필요한 체질검사 (X-레이 포함)  
 입학허가 예정자 전형에 있어 동점자가 2명 이상일 경우  
 고리성적으로 결정하며 고리성적도 동점일 경우에는  
 차령에 가까운 순서로 결정한다.

서울 본교

1965년 12월 7일 ~ 11일 (5 일간)

1965년 12월 12일

- (가) 모든 서류를 완비하고 제출기일을 염두하여야 한다.
- (나) 지원자는 1965년 12월 6일 오후 2시 본교에 접수하여 수험표를 교부받고 주의사항을 받아야 한다.
- (가) 전형요금은 추후 결정되는대로 모집요강에 정시한다.
- (나) 입학원서가 필요한 사람은 원서대 1부 10원과 반색으로 우표를 동봉하여 신청할 것.

1965년 10월 일

1965년 10월 일

성신중학교

## 六·二五의 殉教者들

(4)



安  
喆  
球

△趙鍾國 青年會長 篇▽

가톨릭 青年運動의 先驅  
韓國 天主敎의 기를운 군개 나저놓은 人物  
을 論할 때에 除外될 수 없는 幸信徒가 있다  
면 지금 말하려는 青年會長 趙鍾國씨를 들지 않  
을 수 없다. 그가 이룩해놓은 기를운 青年들의  
信心生活은 淳厚· 바탕이 濃厚하고 誠實하고  
든 일에 私보다 公이 앞선다는 生活 識則은 當  
代의 모범으로 모든 사람들의 追仰을 반기며 充  
분한 것이다.

當時에 青年運動을 같이 하였던 「파악」 張勉  
博士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의 教會에 대한 热  
誠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  
다.

어느 해나 마찬가지겠지만 가톨릭 傳敎의 不  
振은 오로지 『나만 믿으면』 된다는 利己主義的  
인 信心과 傳敎에 대한 無關心에서 생겨나는 副  
作用이다. 이러한 副作用을 없애기 위해서 全心  
全力을 기울여 先驅者的 구실을 한 사람으로  
趙會長이라는 것을 解放前부터의 信者들은 모



拉致되어 가던날 밤  
다른 日韓首腦에 의해  
시 趙鍾國會長이 政治  
保衛部員들에 의해서  
一九六一年九月十六일  
밤에 茶洞에 있는 自宅  
에서 連行되어간 것은

두 잘 알고 있다.

그가 대식하게도 共產  
軍에게 拉致되어간 것은  
이러한 過去의 教會에  
대한 热誠가 要人 리  
스트롬에 오르게 한 까닭  
이었으며 그로 인하여  
한 날 한시에 불을 려  
간 教會 重鎮들과 더  
불어 犯教의 꽃판을 쓰  
게 되었던 것이다.

의심할 수 없는事實이다.

九·二八 收復後 第二次 後退로 釜山에서 세상을 떠난夫人 李順子(례혜사)女史의 이아기를間接的으로傳해 들어보면 그當時 남치될 때의 사연은 다음과 같다. 밤 일시가 법이시 行趙鍾國 社長 친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다.

『여보세요。趙 社長 宅이지요?』

趙 社長이 자리에 들었다가 그대로 훗바지 차고리 바람이리 문판에 나갔다.

『누구십니까?』

하고 상대방의 身元을 재우처 물을 시간 여유도 주지 않고 밤에서는 문 열으라는 새죽이 성화같았다.

『문 중 어시우』

만족부도 매우 품지 못한 상대방의 身元은 이미 짐작이 가능 그런 것이었다.

하고 문이 열리자 밤에 서 있던 軍服차림의 외한하고 문이 열리자 밤에 서 있던 軍服차림의 외한

서니명은 趙 會長의 팔을 잡아 냉았다.

『당신이 趙 社長이오?』

『네 그렇소만……』

이미 마음 속으로 각오는 하고 있었으나 너 무나 갑자기 드러난 친 수난에 趙 會長은 어리 중절하였다. 그리고 조용히 이마에 성호를 그었다.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우선 같이 잡시다.』

이렇게 그의 집에서 끌려나간 뒷 소식을 아는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다.

### 社會的인 活動과 信望

원래가 서울 대생인 趙鍾國씨는 聖堂에서 營하는 學校(啓星普通學校 前身)를 卒業하고 이내 鋼路(네거리)에 있는 和平堂(藥房에 취직하여 藥材業界에 投身하였다. 十年을 하루 같이 誠心과 熱意를 가지고 일하는 趙씨를, 장차 자기의 後繼者로 친히는 社長 후膳(후膳)이라는, 드디어 誠實한 趙鍾國씨를 사위로 받아들이고 모든運營을 委任하였다. 그의 藥業手腕은 날로 圖熟하지, 얼마 후에 왔다.



에는 朝鮮賣藥株式會社를 創設하여 그 自身이 董事로 就任하였다가 위에 社長이 되었다. 胡鈞賣藥의 本부나 有名한 救急藥으로 全國에 大韓藥行을 創立하여 王者로 君臨하였고, 運營에 難이 逼진 普仁堂製藥株式會社를 引受하여 세우운 活氣를 불어 넣어 전까지만 해도 慢性 腸炎이라는 痘瘍을 고해마다 再發症으로 고생을 하면서도 老母를 모시고 있는 몸이라 忽을 두려워해서 끝내 手術을 받지 않고 비단에 이 왔다.

生存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장 유리한 것은 이러한 까닭이 있다. 주당에는 고생을 해왔으니 心身 모두 극도의 충격을 받았던 당시의 건강 상태로 얼마나 持續되었을지 낙관하기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 趙會長의 協力者들

그러던 趙會長이 낭치되어간直接 원인의 하나인 教會重鎮으로서의 그의 활동은 어떠한 것 이었을까?

그 당시 거이 每日처럼 만나서 활발한 가톨릭 社會活動을 펴자고 論議한 人士 中에는 지금 聖 푸가病院의 朴秉來 院長, 齒科醫師 金然權씨가 가장 친친한 사이였으며, 張勉 張勃씨 兄弟를 비롯해서 오늘날 이름있는 名士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以下 張博士의 回顧談을 紹介하여當時의 教會 사정과 青年運動의一面을 두루 살펴보기로 한다.

나타나서 상당히 번창해갔습니다. 지금 생각 나는 것은 우리 兄弟가 美國에서 들었던 방지거 제三회를, 우리 나라에도 들어와야겠다는 의논이 나와서 처음으로 방지거 第三會가 우리 나라에서 결성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二十六年前 일입니다. 會員들은 定期的으로 月例 會도 가졌고, 복면기구 퍼장 같은 행사도 가져 心身修養에 힘썼습니다.

### 끊임없이 發展한 青年會

그 후도 青年會는 發展에 發展을 거듭하여 역 시 六、二五 때 拉致되어간 宋璣燮 副會長을 비롯하여 朴常善, 朴性綱, 中泰政 등 中堅級 人士들 蹤出시켰다. 이렇게 지속한 회생자를 내면서 지켜 내려온 가톨릭 青年會가, 오늘날에 와서는 長足의 發達을 이룩 하여 가톨릭學生가 생겼고, 가톨릭 労動青年會가 생겼고, 또 가톨릭 女子 青年會가 생겼고, 學士會가 생겼다. 이들 團體는 이제 社會와 떼어놓을 수 없는 密接한 관계를 가지고 그 영향력을 发揮하기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가톨릭 青年運動의 先驅者 趙秉基의 영혼에 天主님의 끝없는 指配가 내리지기를 빌어 마지 않는다.

趙會長의 直系 後孫으로는 前 東星中·高等學校 校長, 中央青果物市場 株式會社 社長을 厲任 한 全昌基(오성)씨에게 出嫁한 長女 慶永(비아)이 사와 前 東星中·高校教師를 厲任한 朴東規(안드레 아)씨에게 出嫁한 善永(마리에파)여사, 韓國通信工業 工場長 韓旭(파오로)씨의 夫人 賢永(사비나) 여사, 그리고 三德總紙工業 工場長 金熙烈(질마노) 씨의 夫人 淑永(바울라)여사가 있다.

(다음 호에는 前 京鄉雜誌社 編務 金翰洙씨 이야기를 실을 確定입니다)

### 방지거第三會를 처음 结成

『그 때만 해도 明洞 大聖堂의 주일 미사가 세 대 밖에는 없었습니다. 새벽 미사와 아이들을 위한 아홉시 미사, 그리고 열시 미사였습니다.

그래서 聖場에 나가고 있는 青年들은 주일 하루 뜻맞는 친구들과 만나서 어떻게 教會活動을 좀 더 활발하게 펼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려운 막대고 의논했으며 教理 연구와 信仰 배양에 힘썼습니다.

지금은 巨大한 病院이 들어섰고 이전 모습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이 버려졌지만, 病院 앞 綠地帶와 車道로 쓰여지고 있는 곳에 봄은 벚꽃이 활짝 피어나고, 食堂과 會長 사무실로 쓰이고, 윗층을 青年會館으로 쓰입니다. 그 때 모여든 青年들은 朴秉基, 金然權, 柳洪烈, 韓昌基 그리고 우리 兄弟이었지요. 그 위에 새로운 热誠會員들이 위를 이어

가톨릭청년

贈  
呈



1966

1A





## 六·二五의 殉教者들

(京鄉雜誌社 金翰洙氏 編)

(5)

安 喆 球

當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一九五〇年 六月二十五日、서울 明洞 聖堂구내  
에 도 심상치 않은 절은 구름이 서리고 있었다.  
『공산당이 三八線을 넘어왔다구?』  
『그럼 우리도 빨리 피난갈 차비를 채려야겠는  
걸....』

『아파 이 사람 성미도 격하지. 아 우리쪽은 모  
두 바지 저고리만 있다든가?』  
『아나! 당해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 난 짐싸  
겠네. 자네들은 좀 더 형세를 보겠나?』

이러한 對話가 오가는 가운데 레마침 「로마」에  
가 계신 서울敎區長 虛王敎의 指示도 바랄 거를  
없이一部神父들은 집을 주리고 貫任 있는 神父들  
은 형세를 두고 보자는 생자으로 「라디오」放送  
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選命의 날인 二十七일, 서울市內는 하루 아침에  
「봉은 都市」가 되어버렸고 南下하지 못한 市民들  
은 거리거리, 풀목풀목 아우성이었다.

「봉은 治下」에서 〈죽음의 脫出〉을 하여 越南한  
생자 『나 罪』 않으면 그만이지.... 공산당은 사람 아  
니가?』

하는 常識의 인 判斷이 被拉이라는 結果를 가져  
와 오늘까지도 그生死를 모르고 에대우는 수 많  
은 子孫들을 뒤에 남겨두고 아무도 모르는 면질  
을 떠나고 만 것이다.



갑자사 버리고 떠날 수 없다.

『京鄉雜誌社』라고 하면 지금은 韓國天主敎中央  
協議會로 그 版權이 넘어갔지만 그 때까지만 해  
도 明洞 天主敎會의 歷史와 더불어 자작은 唯  
一한 超敎區的 教會機關誌를 發行하는 通稱 『雜  
誌社』로 確실히 알리져 있었다.  
이 「갑자사」와 더불어 拉致될 때까지 또한 주  
生을 같이 한 본이 지금 紹介하려는 金翰洙(노  
렌조)씨다. 그當時에 「갑자사」하면 「金 노렌조」

였고 「金 노현조」하면 문 장지사를 말하는 것이 되었다.

그 당시 密接하게 關係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金 노현조」에게는 「共產黨의 서울侵入」이라는 소식이 끗지에도 들리지 않았다.

『뭐? 共產黨이 왔어? 그렇다면 너희들 어서 피난가리고나. 나야 다 놀은이.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겠니? 「장지사」를 버릴 수는 없다. 너희들 어머니 모시고 어서 떠나거라』

共產黨이 서울에 入城했다는 소식을 듣고 「장지사 金 노현조」는 이렇게 큰 아들 容勤、容德 이를 불러 데아르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아버지도 같이 가셔야지 어떻게 우리끼리만 피난을 가겠어요?』 아들을의 이러한 권유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제 저작은 많아라. 나와 함께 자락은 「장지사」를 버리고 나는 떠날 수 있다. 내가 저희들에게 무슨 짓을 지었고? 혼란 말고 너희들

이나 떠나라. 좀 조심하고....

지금 주교대는 뭔 빼어있지 않고? 그 둘들이 성당이나, 이 주교대 건물을 어떻게 나의 셰 헤치나 암는지 저기 봐야겠다.』

폐회군이 서울에 들어온 다음 날이었다. 그날

도 아버지의 피난을 권유하기 위하여 민책상을 지키고 앉아 있는 金翰洙씨에게 둘째 아들 容德 이가 事務室로 찾아갔다. 그런데 사무실에는 점은 인경을 쓴 진장한 사나이와 人民軍 服裝을 한

軍人 四, 五명이 문간을 지키고 서 있다가 들어온

는 容德이에게 말을 걸었다.

『이 동네 사는 사람입니다』

『저가 앉아 있는 老人하고 어떻게 되오?』

『그건 왜 물으신니까?』

이쪽에서 反問하자 자못 不快한듯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그 무시계 대담이 그래? 어떤 사이냐면 대답이나 하지 에이구서』

### 평대신 잡혀간 金翰洙

아버지의 피난은 조르다 못한 다른 식구들한  
한 달 후에 뜰불이 피난 길을 떠나고 말았다.

그 후부터 공진당의 말호는 날마다 심해져 主  
敎部는 倉庫로 보내고 明渡命을 내리는가 하면  
피난을 채 둘더니 莊神父에게 教會 有志들의  
居處를 빼내는 등 每日처럼 상화를 대는 바람에  
집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

『노현조』도單身 「장지사」를 지키겠다는決  
心을 굳히았으나, 거이 遣放되다시피 「장지사」에서  
물리나고 말았다. 그러나 서울을 떠난다는 것은  
자기에게는 도사리 容納될 수 없는 邪惡으로  
되었다.

『내가 떠나니 어렸을 때부터 오늘까지  
거내려 봐서 「장지사」를 버리고 어떻게 떠나  
날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장지사』를 빼어나갈  
이후에는 「장지사」를 빼어나갈 빼어나갈 빼어나갈  
수록 그 힘에는 그 힘에는 그 힘에는 그 힘에는  
자기에게는 도사리 容納될 수 없는 邪惡으로  
되었다.



이 갈수록 굳어 가기만 했다. 그래서 聖堂 廟內 를 물려난 그 날로 서울 乙支路 三街에 있는 山林洞 사위집으로 宿所를 옮겼다. 그의 마음은 피난 나간 家族들의 安否보다도 聖堂의 安否가 더 궁금했다. 낮에는 近處 篓井洞에 있는 鄭南奎 會長 집을 찾아가서 教會의 일정을 친정하고 저녁 날을 回顧하며 서로 위로하는 만족 주고 받았다.

그러던 중에 九月 十六日 새벽 세時, 運命의 날이 왔다. 심부름하는 處女아이 하나만을 데리고 이미 피신하고 있는 사위 金仁培 會長의 집을 찾게 몸을 온신하고 있는 그 집에 밤중에 찾았다.

『아무도 없어? 문 좀 여시오?』

참도 안하고 해서 배피 신공으로 밤을 밟아고 있던 金翰洙씨는 얼른 밖으로 나갔다.

『지 누구요?』

『동 인민위원회에서 왔는데 문 좀 여시우』

『원! 이 밤중에 무슨 금한 일이요?』

『잔 말 말고 어서 문이나 여시오!』

이렇게 한동안 육신 자신 하다가 문을 여니까 대뜸 「이 집이 詩「培」집이지요?」  
『그럼 소리……』  
『그 사람 있어요?』  
『없으이다. 이 집엔 나 밖에 아무도 없는데……』  
『그럼 영감은 누구요?』  
『난 金仁培 장인이 되는 사람이오』  
『아! 그럼 됐다. 평 대신에 탑도 편찰지……』  
어느새 會長들의 名單을入手해서 會長들을 살펴보니 단디면 政治保衛部에서는 평 대신 탑을 잘 아갔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그 탑은 보통 탑이 아니라 教會를 위해서는 삽입을 놓아주는 탑이었다.

### 敎會 援助도 새발의 피

여러 가지 證言과 資料를綜合해 보면, 지금까지 詩「紹介한 鄭南奎 會長、趙鍾國 會長, 그리고 金翰洙씨가 모두 같은 날 잡혀간 것으로 되어 있으나, 金翰洙씨의 家族들은 九月 十六日 새벽으로 떠나, 그 날을 追悼하고 있다. 어쨌든 피난에서

없는 民衆들이 그들을 무서운 壓力으로 대리 했자. 이러한 苦痛은 비단 金翰洙씨一家에게만 局限된 것이 아닙니다. 집안의 檢察과 自立能力이 있는 長成한 子女들을 함께 떠나 임은 朴女史의 경우는 特異한 것임이다.

### 보람찬 일터를一脚하고 獻身

돌아온 선구들이 家長의 拉致 소식을 들고는 一家 출동하여 밤색에 나섰다.  
원체 年老하고, 그동안 고생을 많이 겪었으므로 멀리 가지는 못했으리라는 생각에서 밤새 활을 당한 現場을 찾아다녔다. 南山을 비롯해서 京畿 안이나 八十여 명의 참살된 시체들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그들이 찾고 있는 家長은 어제이 行方이 표연했다.

夫人 朴「수상나」女史는 그 후, 수급 중인이나 失神狀態에서 死境을 헤매었다. 그도 그럴 것이 動亂onga에 長成한 아들 뱃은 모두 重病에 入院하고 술하에는 나이어린 아들 하나밖에 없어, 爲子로 살아 나갈 걸이 악연했던 것이다. 朴女史는 家教에게 살아간 方途가 막혀버리고 그제야 소수 하였다.  
敎會 寺局으로서도 그대로 관리하는 責任을 느끼고 全國 主敎會 대사관에서 朴女史를 議한 끝에 百萬화를 마련해서 집을 마련해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명그마니 집만 쓰고 입아있기에는 너무나 不安한 社會 인심이었다. 形勢를 수

「노련조」 金翰洙씨는 一八七五年 서울 孝子洞에 서 政府高官의 後孫으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漢文을 배우다가 新學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에서 三年間 法語學校를 다녔는데, 同期卒業生은 金翰洙씨가 사장 분이었다. 同期同窓 中의 한 분은 前 國務總理를 지낸 強勉 博士의 謙親이었다니 可惜 우리 나라 新學問 導入의 先驅者라고 할 수 있다. 十九歲 때에 法語學校를 졸업한 金翰洙씨에게는 너무나 넓고 보람찬 일터가 기대되고 있었다. 그러나 후회에 金 도사 會長의 권유로 가톨릭에 입교한 그는自身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官職을一脚해버리고 敎會 일을 맡아보기로 결心하였다. 그 배가 一九一五年, 그가 拉致되어 잘 배우더니

五年前、그러니까　今年(一九六六年)부터　마자　六十  
二年前이 되는 생이다.

閔主教의 秘書兼總務로 있으니서 鄭南至 會長  
과 함께 教會의 財產을 一目瞭然하게 整理한 그  
의 功績은 韓國天主教會史를 論하는데 있어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은 本國에 돌아가서  
休養하고 있는 前 서울教區長 元(타리보) 主教가  
처음 神父로 낯선은 이 땅에 派遣되었을 때  
우리 믿을 가르치는 일은勿論、머리도 짚아주고  
언제나 말동무로 지냈다는 것은 많은 숨겨진逸  
話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法語(프랑스말)  
學校를 나왔으니、「프랑스」에서 처음 찾아온 神父  
들에게 우리 믿을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歸宿인지도 모른다.

#### 四代 主教 모세온 산 百科辭典

閔主教에서부터 손남아 元主教、元主教、盧主教  
의 四代 主教를 모세온 金 「노엔조」는 韓 「바  
오로」 父父가 처음으로 「창지사」를 시작하면서 主

교계일파　장지사　일을 한꺼번에 보아야하는 무거운　責任을　졌다。「경향장지」에 관한 모든 일、聖物　版賣、敎會土地管理、管財、外國援助의 分配에 이르기까지 敎會事務에는 四通八達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

當時의 일을 잘 알고 있는 神父나 敎會重鎮들은 그를 「살아있는 敎會百科辭典」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어디에 무슨 敎會와 그 財產이 얼마나 있다는 것을 눈 감고도 짚어내는 程度였으니 그린 呼稱도 當然한 別名인 터지 모른다.  
이제는 行方조차 묘연하여 이미 天國의 永福을 누리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은 가지만, 그는 한平生、韓國天主教會의 이름과 더불어 살아온、꿈을 수 있는 因緣을 간직해 온 人物이다.

「요안」 張勉 博士도 그를 回顧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 분은 우리 韓國天主教會史에 빼놓을 수 없는 重要 人物의 한 분입니다。韓國 天主教會가 存在하는限 絶對로 잊을 수 없고 또 잊어서는 아니 될 貴重한 存在였습니다.」

十五歲에 婚姻<sup>후</sup>하였으나, 인찌기 夫人을 잃고  
二十歲에 桜「수산나」女史와 再婚、술하에 十男妹을  
문 多福한 어머이로서의 그 문재자는 「障保會」  
여자가 되어 있는 딸도 있다.  
지금 金谷里 教會墓地 葬埋人으로 있는 金仁培  
(바오모) 俗長의 夫人은 그의 딸만으로서 황상자  
기 남편을 찾아왔다가 대신 懷胎당한 어머지의  
靈魂이 永存한 복이 있기를 바면서 안타까워하  
고 있다.

夫人 朴女史는 千戶洞 聖堂 所屬으로 餘生을  
오기 教會事業에 힘쓰기 위하여 지금도 절집이  
不虛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男便이 잡아놓은 기  
들을 살피고 있다. 술하의 주부들이 이미 長威  
하여一家을 이루고 있으니 陰力이 남아있는 동  
안마이라도 남의 영혼 救하는데 힘을 쓸자는 것  
이다.

△ 다음號에는 金貞熙씨에 관해서 紹介할 證定입니다.

# 謹賀新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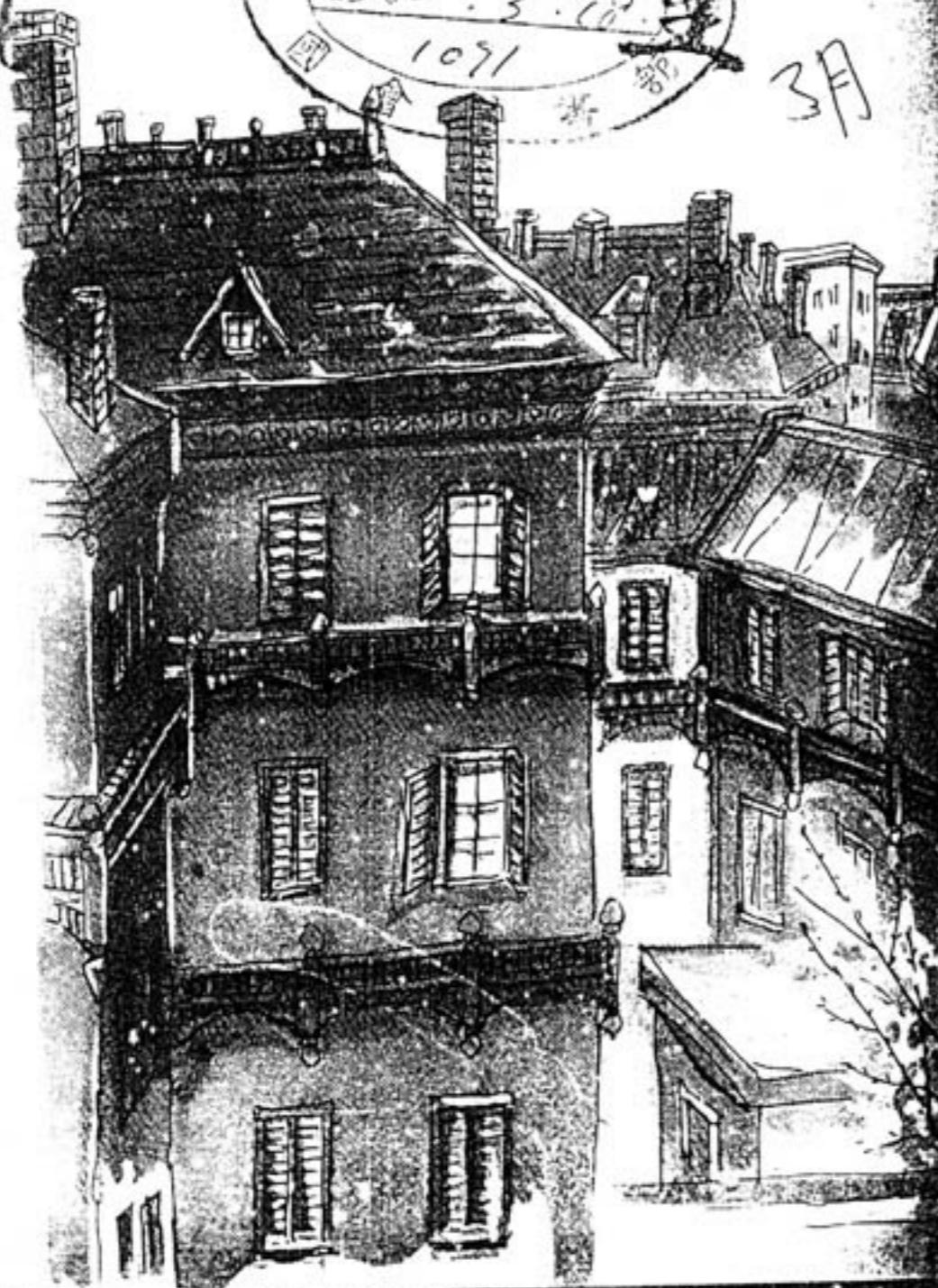
가톨릭出版社  
員一同

# 가톨릭청년

3

1966

96



병인 순교 100 주년 기념 출판!

## 信仰 自由의 黎明期

林 忠信 神父 譯編

4 × 6 판 · 양장 · 250 면

상가 200 원

병인 순교로 전승된 영광을 재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를 새롭게 알  
수 있는 일기와 현지들.

## 돈 보스꼬 이야기

피터 라비 지음

成 稔 옮김

4 × 6 판 · 반양장

240 면 150 원

청소년 돋보기

서

## 聖地 빨레스띠나

李 鐘昌 神父 지음

4 × 6 판 · 호화 양장

모조 128 면 150 원

알립

본사에서는 중대 10원, 15원으로 봉사하던 합승비자를  
시가 양동으로 부득이 신년도부터 15원으로 금일화 했습니다.  
이런 교통에 대한 강호제현의 해양아심과 배전의 애호 천단을  
바랍니다.

가  
톨  
릭  
청  
년  
사

大  
正  
年  
月  
日

이렇게 視野를 넓혀서 생각해 놓자. 그를 한 수 있겠는가?

저의 품 天皇를 現神이라고 한 日本軍閥들의 머리로서도 教皇의 位置을 잘 알고 있었음으로 그 당시 이를 問題삼는 축들도 있었으나 결국 그들의 知性은 이는 半哲지 않았다. 말하자면 「교황이 어디 왕제냐?」하는 「벗나가」思考를 하지는 않았다.

## 六·二五의 殉教者들

△金貞熙氏 篇▽

(完)

安  
喆  
球

大聖堂補修工事  
를 감독

『金 안드레아 貞熙』

이라고 합니 離去한 중

에 『귀에 살다』고 생 각하는 분들이 많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日帝時代, 그것도 戰爭末期에 어려가지 活動에 制約를 받고 있던 教會가 大勇斷을 내려,

하는 工事を 중 감독 한 분이라고 하면 그 때의 일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아! 그 분이 호구하고 다시 없는 親密

책 잡지 말기 바란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 「교종」을 현재와 같이 전용하는 경우, 적어도 으로 쓰는 事由가 初開인 그들에게 좋게 설명해 줄 바를 公開로 들려주면 감사하겠다.

(筆者 前가톨릭시보 編輯局長)

## 가톨릭 소년



3월호 나왔다



感을 느끼게 될 것이다.

全國最大이고 가장 오랜歴史를 지니고 있는 韓國 天主敎會의 「심풀」 明洞 大聖堂의 大補修를 계획한當時의 서울敎區長 盧基南主教(現大主教)는 本堂 李神父(도마)를 비롯하여敎會 有志들을 한 자리에 모아 工事의 進行에 관해서 의견을 모았다.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 大聖堂은 一八

九八年 閔主敎께서 心血을 기울여 지으신 韓國 教會의 象徵的인 建物입니다. 그러나 建築 후 五十年이 되도록 손질을 하지 않아, 지붕이 새고, 벽돌이 부스러지기 시작합니다. 이 稽修工事を 하기 위해서 外國으로부터의 援助도 배정되었으나, 그런데 문제는 누구에게 이 工事を 맡기고 누가 그 工事を 감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중에 많아서 할 사람이 있습니까?』

盧主敎의 제의에 대해서 有志한 사람이 손을 들고 일어섰다.

『이번 工事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著者와

신색은 公開 入札를 해서 定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工事의 감독만은 반드시 교우중에서 제당한 사람을 찾아내어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金 안드레아는 능히 이번 工事의 감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꿈꾸하고 일을 수 있고, 능력있는 일꾼인 陳德烈 惠化洞의 張勉씨 처남되는 사람으로서 그에 비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提議에 대해서 異論을 내시우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工事計劃은 차차 運行되어 公開入札에 붙여 여러 菜署들로부터 見積을 받았고, 金 안드레아는 工事 감독으로 임명되었다. 여러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이 명예로운 工事を 맡게된 菜署는當時 著界를 주름잡던『吳工務所』로 낙착되었다.

### 専門家를 능가하는 才能

一八九五年 五男妹의 망내로 태어난 金貞熙씨는 어려서부터 손재주가 있어, 무수 技術이던지 한번 보기만 하면 끝낼 수 있는 天才의 소질을 타고났다. 이나무 살 때부터 이미 時計같은

精密기계를 고쳤고, 그의 손이 가서 바로 잡아지지 않는 것이 없었다.



建築 관계만 해도 그 많은 才質中의 하나로, 大聖堂 补修工事 이전에 지금 惠化洞 張勉씨 집을 손수 設計하고 감독하였다.

本篇에서 이미 詳介한 鄭南奎 회장과도 상당한 親交가 있어 鄭會長이 私費로 建築하는 君子洞 养老院을 비롯하여 사소한 建築에도 數々 일이라면 말 빚고 나서는 사람이었다. 지금 大聖堂 西쪽 바탕에 建築하게 놓아있던 大講堂만 빼도 그 設計에서 施工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손으로 이룩된 것이다. 이 建物은 처음 啓星

學校 講堂으로 쓰이다가『가톨릭 文化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더니 이제는 가톨릭醫大 諸義室 겸 강당으로改造成되어 지금도 그 단단한 威容을 자랑하고 있다.

가톨릭 醫大에서 쓰기 위하여 内部改造工事を 맡았던 著者는 「이렇게 단단하게 지은 집을 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工事 중에 죄운 애로를 말하고 있었다.

그의 이러한 관찰력은 建築 工事を 葉으로 삼고 살아나가는 實務者들을 놓가하는 것이었다고 어느 附近者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한번은 어느 建築 工事들 감독하면서 金씨가〈기공이 약간 누었다〉고 치적하였습니다. 著者は 자신의 위신에 관한 일이라고 생각했던지 〈그럴 리가 있나요? 水平으로 재보고 세운 것인데 ...〉하면서 기공을 중심으로四方을 돌아보며 우거졌습니다.

〈이 기공은 기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金씨는 〈원쪽으로 약간 기울었으니,

다시 한번 재어 보시구려〉하며 자기의 주장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설 끝에 추를 말고, 기둥 위에서 아래로 그려 뜨려보고 나서 그 엄자는 혀를 헤매 내저었음니 다. 〈저 양반에게는 꽃 달해내겠다〉고.....

### 막걸리 친구 張 會長의 回顧談

원래 米穀商을 하면서 휘미로 손을 대게된 것으로 만족하고 있었다. 一九一六年에 金 수산이 씨와 結婚을 하였으나 술에 子女가 없어 딸

그런대로 幸福하게 살아오다가 一·二五動亂이 터졌다. 이 事變은 다른 누구보다도 金씨一家에게는 치절한 것이었다. 家長인 金씨는 歐洲軍에게 끌려되어 갔고, 夫人도 五年 뒤에 피난살이를 하면서 세상을 떠났으며 養女 노한 명이 걸지 못하였다. 그當時 土建築을 했던 관계로 金씨와 가까이 지냈다는 教會의 張志培(現 黑石洞 本堂 會長)씨는 이렇게 同頤感을 말하였다.

『그 분파는 오래 사귄 친구입니다. 다시 없는

### 新版 유다스에게 팔려가다

학교 친구 있으니까요.... 하면서 넘지 않아던 당시의 일을 대다.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金씨가 六·二五를 맞이한 곳은 東星中學校 南쪽에 있는 莲花洞 本堂 金氏(金氏)에게는 聖職者들이 聖物을 맞기고 있다. 化洞 聖堂의 詮具도 경하고 있다. 그에게는 身體 하는 그 해까지만 해도 莲花洞 本堂 金氏에게는 손을 대지 않고 있었는데 그것은 모든心思을 이루고 있는 明洞 聖堂들에게다. 能力を 하고 있는 그 예문이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대부분의 모든 교우들이 그때마다 「내가 최 진것 없는데 미안한 데는 뭐가 있어야?」 하면서 꿈내 버티고 있었다.

그리나 그 안드레아 詮具는 「...」라고 말하고 나스가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던 그 암도 리가 없는 소녀는 거의 매일같이 그집에 들어온다. 아 남문대 時局感을 주고 한숨이 끝나는 데 있다.

이 本格的인 建築業者처럼 〈이미 머쳤으나, 그는 그 것으로 만족하고 있었다. 一九一六年에 金 수산이 씨와 結婚을 하였으나 술에 子女가 없어 딸

설 끝에 추를 말고, 기둥 위에서 아래로 그려 뜨려보고 나서 그 엄자는 혀를 헤매 내저었음니다. 〈저 양반에게는 꽃 달해내겠다〉고.....

『金貞熙라는 자가 教會 포도밭을 관리하고 있는

데 그자는 지금 李承晚政府의 美國大使로 가

있는 張勉의 처남입니다.』

『뭐? 그런데 대 통무는 인제서 그런 정보를

가져온단 말이오?』

『나도 잘 아는 사람이 돼서 한참 망설이다가

왔습니다.』

『중소! 동무는 公과 私을 분명히 할 줄 아는

모임 人民이요.』

하며 委員長은 그 青年의 어깨를 툭툭 치다.

그로부터 三十分도 채 못되어 委員長과 內務署

員은 青年을 앞세우고 金會長

『동부가 金貞熙요?』

『예. 그렇소만....』

內務署員은 두 말도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집

취침을 하였다. 聖職者들이 밤기고 간 聖物들이

많이 나왔다.

『이 사람은 둘 反動이구만』

하며 金會長은 차차 보았다. 그리고 말을 이어

『당신 張勉의 처남이라지?』

『예. 맞습니다.』

『잘 되었다. 가자!』

하였다는 듯이 조용히 聖號를 그으며 뒤를 따라 나섰다. 그가 어디로 끌려 가고 또 어디에서 어떤 빙계 되었는지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오직

天主께서 굽어보고 계실 것이다.

## 교회를 맷으면서

그런데 일을 시작하고 보니 너무나 박차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보다 구체적이 수 있도록 하려면 筆者 個人的 침으로는 도저히不可能한 것임을 날이 가고 회數를 거듭할수록

교회에도 殉教者頌揚會라는 것이 있어 사장히 서 二(二)씨, 그리고 紙面을 내어주신 가톨릭青年에 걸은謝恩을 표하는 바이다.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런 計劃은 例人이 나서기 보다 그런 會에서主動이

되어 六·二五의 犯難者들을 찾나내어 考實하게

資料를 수집하는 것이 더욱 効果的인 일이다. 아닐

까 생각하면서 當局의 보다 더 적극적인活動을

기대하고 싶다.

그러나 이왕에 내친 결을 中途에서 멈출 수도 없고 取材하면서 겪는 苦行을 罰의 보속으로 여기고 不實하게나마 근근히 우선 第一次 記錄의 끝을 떠나 되었음을 讀者들과 더불어 多幸으로 생각한다.

지금까지 詳介한 본문에 대해서는 그래도 大人이나 子孫들이 生存하고 있어서當時의 소식을 斷片的으로나마 表現할 수가 있고 또 거의 小賈과 나름없이 묘사되었다고 말하고 싶다.

그러나 不幸히도 끝으로 남은 宋慶煥씨에 관하여는 資料를入手할 경지가 없어 부득이 이번 기록에서 누락될 수 밖에 없었다. 그동안에 계속해 온 「六·二五의 殉教者들」을 뛰어나가는데 있어서 實質的인 도움을 주신 崔常善씨와 鄭仁坡(鄭南坡)

六·二五에 被拉된 教友들의 實情  
을 後世에傳하기 위하여 讀者 여러분의 協力を 빙니다. 어느때고 관계자 않으니 아시는 분은 자세히 기록하여 보내 주시면 文章을 다듬어서 잡지에 내어드리겠습니다.